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제989호

내년 예산 올해보다 20조 늘어난 376조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경제살리기 '슈퍼예산' 편성으로
재정적자 33조·국가채무 570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의 목소리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임기 내 균형재정 약속을 포기했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대폭 확장 편성하면서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1.0%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첫 재정목표인 균형재정을 결국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긴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당장 복지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줄이려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 증액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는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나라 곳간을 활짝 열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 예산'이 경기부양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만 악화시켰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증세만이 아닌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소득세, 법인세 등을 올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세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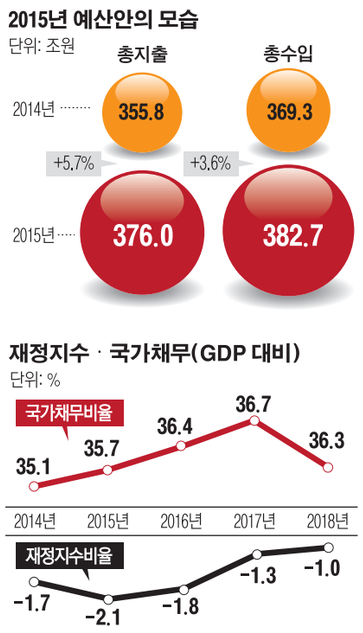
정부는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또 2013~2017년 중기재정계획보다 8조원 늘어난 것으로 과거 통상적 추경 지출 규모인 5조~6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렇게 늘린 예산은 일자리 창출, 투자활력,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 가장 높은 증가율(17.9%)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382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 늘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의 형편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 3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 역시 올해 -1.7%에서 내년 -2.1%로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6년 -1.8%, 임기말인 2017년 -1.3%, 2018년 -1.0%로 단계적으로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균형재정 기준인 ±0.5%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살리기가 급선무인 만큼 어느 정도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예산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진작에 올인했음에도 성장동력을 살리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만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서민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담뱃세와 주민세 등이 인상된 만큼 소비세와 법인세 등 부자증세로 계층 간 세부담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상당기간 초저금리 유지" 美연준 조기인상론 진화

양적완화 100억 달러 또 축소
내달 FOMC서 QE 종료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현재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considerable time)'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4면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채권 매입 규모는 오는 10월부터 월 1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0.25%로 사실상 제로 수준이다. 연준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제로 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

성명문은 경제지표 등 여러 요인을 평가할 때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12월 당시 850억 달러이던 3차 양적완화(QE) 규모를 100억 달러 줄이는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해, 지난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채권 매입액을 100억 달러씩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오는 10월 FOMC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끝내면서 3차 QE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QE를 통해 4조42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연준은 FOMC 성명문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노동자원은 여전히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 정책위원들의 금리 전망은 높아졌다. 연준이 FOMC 이후 공개한 경제전망과 점도표에서 위원들은 연방기금 목표금리가 오는 2015년 말 1.37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말에는 금리가 3.7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원·달러 환율 1040원대로
美 FOMC 여파 7원 급등

뉴욕증시는 17일(현지시간) 상승세로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다우지수는 이날 24.95포인트(0.15%) 오른 1만7156.92로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59포인트(0.13%) 상승한 2001.57을, 나스닥은 9.43포인트(0.21%) 오른 4562.19를 기록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은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 상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 넘게 상승하며, 장중 108.39엔까지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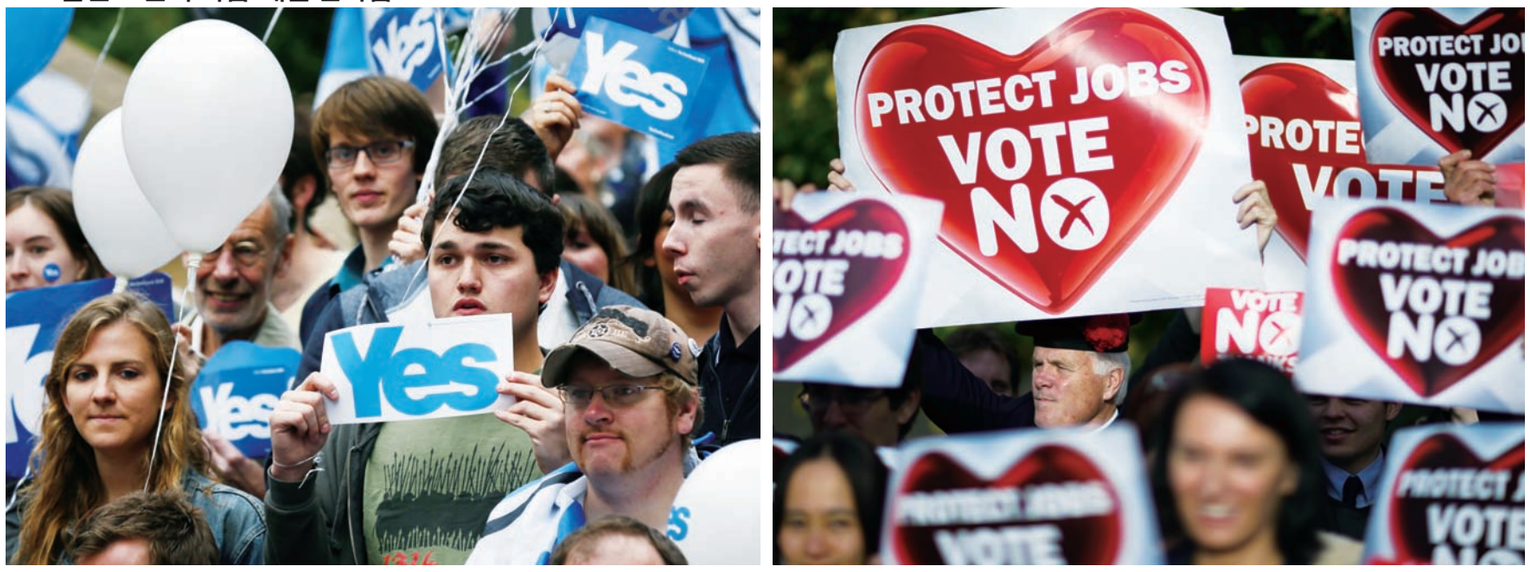
유로·달러 역시 0.7% 하락한 1.2865달러에 거래되며 달러 강세를 반영했다.

원·달러 환율은 18일 오전 9시 18분 전일보다 7.1원 상승한 1041.9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오전 8시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김준일 부총재보를 반장으로 하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 "미 연준의 정책스탠스가 유지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내일 판가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를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글래스고 조지 광장에서 독립 찬성 지지자들이 파란색의 'YES' 피켓을 들고 'YES'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16일 에든버러에서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키자, 분리독립 반대'라고 쓴 붉은색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18일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시행된다.
글래스고·에든버러/AP연합뉴스

513%… WTO 벽 넘을까

당·정 쌀관세율 확정…농민단체 난입에 회의 일시중단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쌀 관세율을 철저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하고 쌀 관세율을 이 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쌀 관세율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야당이 반발할 경우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들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몰려와 계란과 고춧가루를 뿌리고 식기를 엎는 등 쌀 관세화 반대를 주장하며 격렬히 항의해 40분간 회의가 중단됐다.

농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더라도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WTO는 우리 정부가 결정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WTO의 정해진 쌀 관세율 계산법으로는 300%도 쉽지 않다는 것이 농식품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협상 타결까지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해 협상타결까지 최대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높게 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발전대책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기조로,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을 담았다.

박상영 기자 sypark@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표결로…임영록 결국 해임

KB이사회 결정… 금융당국·이사회 책임론 확산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결국 해임됐다. KB금융 이사회가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최종적으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임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맞서 이례적으로 행정소송에 나서며 정면 대결을 지속했지만, 믿었던 이사진이 등을 돌리면서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9명 이사 가운데 7명 찬성, 2명 반대로 임 회장을 해임키로 의결했다. KB금융은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어 등기이사 해임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결국 임 회장은 직무정지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KB금융 복귀는 막힌 셈이다. ▶관련기사 4면

당초 임 회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KB지주 이사회가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은 최대한 빨리 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금융당국이 추가 검사,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고, 검찰 또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압박이 가해지자 전격적으로 해임안을 상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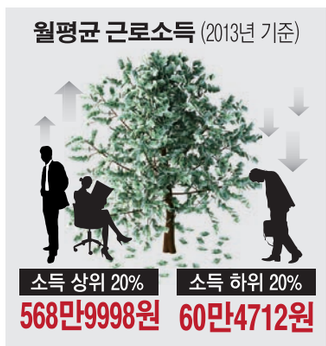
무엇보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직접 나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사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KB금융 전체에 만만찮은 후폭풍이 닥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곧 차기 회장 선임 작업에 착수한다.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는 조만간 여러 후보군 가운데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기 회장 선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통상 1~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실상 KB금융 경영은 올스톱 상황이다. 앞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4일 사퇴하면서 은행을 이끌어야 할 행장직이 열흘 넘게 공석이다.

한편 임 회장 해임에도 불구하고 공멸을 불러온 내분사태에 대한 사외이사진의 책임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4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자 임 회장 지원을 자청하며 KB사태를 최악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역시 뒷북 행정과 오락가락 통제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두 달간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혼란만 더 키웠다.

안철우 기자 acw@

Graphic NEWS





고소득자 근로소득 비중 커

소득 상위계층의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이 소득 하위계층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60만4712원으로 경상소득(130만1271원)의 46.5%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568만9998원으로 경상소득(756만9185원)의 75.2%를 차지했다.

경상소득은 규칙적인 소득으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임대료·이자·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실업수당·생활보조비·연금 등의 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조세포탈 추징액·고발 늘어

국세청의 조세포탈 범칙조사 추징액과 고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벌여 2조2753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추징액은 전년도 1조3824억원과 비교할 때 무려 8929억원(64.6%)이나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범칙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2009년 383건·7008억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 443건·1조800억원, 2011년 527건·1조6569억원, 2012년에는 641건·1조3824억원에 이른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Life 목요섹션 19~21면

커버스토리
친환경 '힐링 아파트'


김정태 회장 ▶9


최신원 회장 ▶15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 물 건너간 공약가계부

커지는 재정건전성 경고음

내년 관리재정수지 33조 적자
국가채무는 570조로 43조 증가

현 정부 임기 내 GDP 대비
재정적자비 0.5% 달성 어려워

정부 경제성장률 낙관적 전망
나라살림 가계부 부실만 키워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은 더욱 커졌다. 최근 3년간 국세수입 감소로 나라 살림은 빠듯한데 쓸 돈은 많아진 탓에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목표도, 공약가계부 약속도 물 건너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으로 추산됐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최고치인 3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2015년 관리재정수지인 17조원 적자(GDP 대비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527조원)보다 43조1000억원이나 증가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5.1%에서 35.7%로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원 등으로 줄어들어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1.8%, -1.3%, -1.0%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기간 36.4%, 36.7%, 36.3%가 될 것이라 했다.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지출 확대로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에 활력이 생겨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단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0.5%로 맞추는 균형재정 달성은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당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대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에는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목표를 낮춰 잡았다. 재정지출 계획은 2015년 376조원, 2016년 393조6000억원, 2017년 408조4000억원, 2018년 4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5%다. 하지만 복지분야의 법정지출이 늘면서 의무지출이 2014~2018년 연평균 7.1% 늘어나는 데 비해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등에 쓸 수 있는 재량지출 증가폭은 2.0%에 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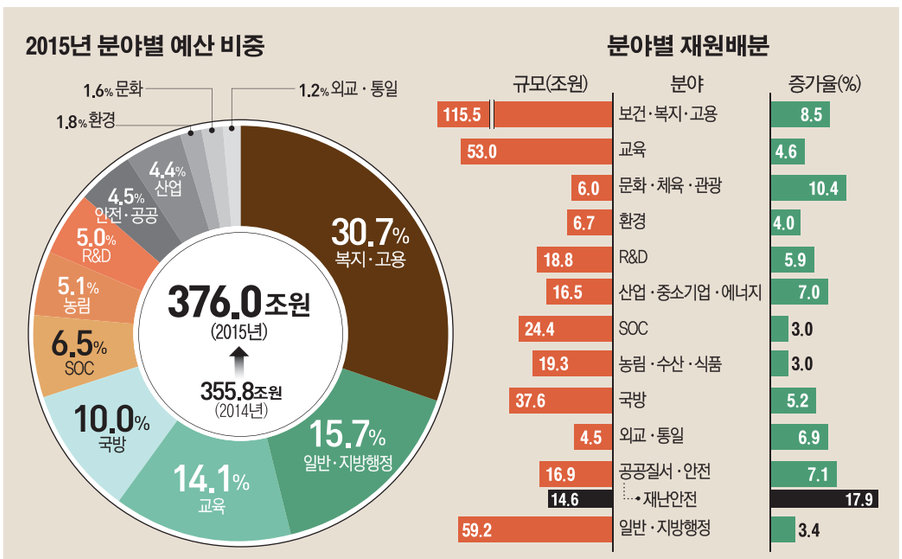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각국이 경기 침체 탈출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늘어나지만 중기계획상으로는 적자를 줄여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확대한다지만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1%에 달하도록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속적인 재정 적자 편성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밖에 없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재정적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늘리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 있다"면서 "적자 재정이 커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세입 전망을 크게 잡은 점도 나라살림 가계부를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총 국세는 2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5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약 546만원으로 올해(550만6000)원보다 4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내년 물가상승률 2%, 실질성장률 4%, 경상성장률 6%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작년 발표한 중장기계획에는 올해보다 23조원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예산안엔 13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당장 1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만 33조원에 달한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데다 최근 경기둔화 추세를 봤을 때 내년 소득세수가 5.7%, 법인세수는 0.1%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적인지 않은 계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이번 예산안을 통해 내놓은 세입기반 확충 방안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역외탈세 대응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은 이미 그 성과에 의문부호가 붙은지 오래다. 현 정부가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최근 세수여건 악화와 고소득자·대기업 증세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막막해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가계부담 완화 주요내용

보육·양육

	2014년	2015년 계획	비고
어린이 예방접종비	접종비(A형간염, 2회) 10만원/인	전액무료	무료예방접종 (13→14종)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연 84만원 (월 7만원)	연 120만원 (월 10만원)	최저생계비 130% 이하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연 최대 96만원	연 최대 288만원	맞벌이 가구 (40→80시간/ 월) (2천→3천원/시간)
교육			
대학생 장학금	연 평균 350만원	연 평균 380만원	(예) 소득 4분위 (247.1만→337.5만원)
근로 장학금	연 평균 200만원	연 평균 205만원	소득 7분위 이하

의료

	2014년	2015년 계획	비고
어르신 독감 예방비	접종비 2만원/인	전액 무료	보건소만 무료 → 병·의원 확대
선택진료비	본인부담 연 약 240만원	본인부담 연 약 145만원	대학병원 수술 간암환자 기준
상급병실료	본인부담 평균 4.3만원/일	본인부담 평균 1.3만원/일	수가 3만원/일, 건강보험 50% 지원 가정시(시범사업)
간병비	본인부담 약 8만원/일	본인부담 약 1.5만원/ 일	수가 3만원/일, 건강보험 50% 지원 가정시
기타			
에너비 바우처	-	연 15만원 내외 (신설)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가구

내년 공무원 월급 올해보다 3.8% 인상

정부의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살림살이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내년 공무원 월급은 3.8%로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예산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를 올해보다 3.8%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 액수가 28조9000억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내년에는 그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약 30조원이 공무원 봉급으로 책정된다.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은 안전행정부의 민관보수심의위원회에서 소속 전문가들이 민간부문과의 격차를 비교해 권고안을 내면, 기재부에서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올해의 경우 앞서 지난 7월 민관보수심의위원회가 올해 공무원 임금을 3.5% 인상하라는 권고안을 기재부에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기재부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3.8% 인상률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무원 봉급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의 낮은 인상률로 민간부분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고 그 이후에도 2011년을 제외하고는 민간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을 책정해 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세입여건이 악화되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1.7%로 낮게 책정해 민간부문과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민간-공무원 임금인상률 비교

공무원은 기본급 인상률, 민간은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체 협약임금 인상률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무원	1.80%	동결	동결	6.50%	4.10%	3.30%	1.70%
민간	4.90%	1.70%	4.80%	5.10%	4.70%	3.50%	4.50%



23일 국회로 넘어가는 예산안… 연내 처리될까

세월호법에 막혀 심사 일정 못잡아

朴대통령 22일 시정연설도 불투명

국회 통과해도 '부실심사' 논란 예고

정부는 오는 23일 2015년도 예산안을 국회로 넘길 계획이지만, 제때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직권으로 정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22일 예산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지만,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체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은 나오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의 늑장 처리는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은 새해 예산안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하고 있다. 선진화법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만큼은 여당이 이 법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야당의 협조는 필수다. 여당이 158석이라는 불안한 과반의석을 갖고 있기에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표결에 붙여 가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정된다고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돼도 국회 공전 사태로 인한 예산안 '부실심사'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최소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거나 몸싸움을 벌일 가능성은 낮아졌다. 선진화법에는 '회의장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처벌이 강해지면서 충돌 소지가 작아진 셈이다.

앞서 여야는 작년까지 무려 11년 연속 예산안을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해 왔다. 그중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1998년 DJ정부 출범 이후 최근 16년 동안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준수한 건 2002년 단 한 번뿐이다.

김의중 기자 zerg@

대웅제약



비타민B의 효과!
활성과 **함량**의 차이를 따져보세요

활성형 비타민[1)]
활성형 벤포티아민은 일반 티아민에 비해 빠르게 흡수되고, 8배 이상의 생체이용률을 보이는 비타민입니다

고함량 비타민[2)]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최적 섭취량을 만족시키는 고단위 함량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권장섭취량의 약 2~100배 이상)

1) The Real Vitamin & Mineral Book, 4th ed. penguin, 2007
2) J Gerontol. 1991 Jan;46(1) : M16-22

피로에는
임팩트 비타민 **임팩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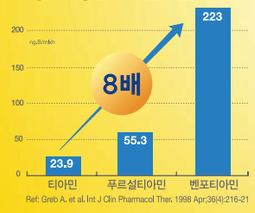
가까운 약국에 문의하세요

✓**활성형 벤포티아민** 함유로 **생체이용율 8배 우수**
✓**비타민B 10종**, 아연, 비타민C 함유
✓**소형정제**로 복용 편리

효능효과 : 육체피로, 체력저하, 눈의 피로, 구내염,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생체이용율 8배 높였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상담실 080_550_8308~9 / www.impactamin.com ▶광고심의필 : 1266-2804

식사 후 바로 복용하세요 – 비타민 B군 함량이 높아 빈 속에 복용시 일시적으로 미식거림, 속쓰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회복 더디다”… 재정 확대 ‘경제살리기’ 마중물로

2015년 예산안 특징 및 개요

경제활력 제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예산 규모	13.2 → **14.2조원**
청년 일자리	13.6 → **14.9만개**
여성 일자리	10.1 → **10.7만개**
중장년 일자리	21.2 → **21.9만개**

기업 투자여건 개선

중소기업 정책금융	92 → **97조원**
노후공단 재정비	4 → **8개소**
산단혁신펀드 조성	**260억원**
경제특별구역 기반 확충	448→ **496억원**

수출촉진 등 해외 수요 창출

수출기업화지원	116 → **170억원**
중소기업 수출보증 · 보험규모 확대	40 → **45억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136 → **168억원**
가젤형 기업 500개 육성	**3,350억원**(신규)

지역경제 활성화

SOC투자규모 확대	13.2 → **14.2조원**
지역기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육성	13.6 → **14.9만개**
행복생활권 지원사업 확대	10.1 → **10.7만개**
노후터널 · 교량 등 시설 안전 및 유지보수 확대	21.2 → **21.9만개**

미래성장동력 창출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	**308억원(신규)**
청년 창업기업, 엔젤 투자 지원 펀드 확충	**2,000억원 조성**
기술유망 중소기업500개 선정 · 지원	1,000 → **2,500억원**
스마트챌린지 프로젝트 등 실증사업	**703억원(신규)**

전략적 R&D 투자 및 성과 창출

13대 성장동력 투자	9,975 → **10,976억원**
중소 · 중견기업 R&D투자	29,770 → **32,983억원**
에너지 수요관리기술 R&D투자	1,731→ **1,872억원**
출연(연)융합연구 활성화	826 →1,032**억원**

미래 먹거리 창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	**1,500억원**
MICE · 의료관광산업지원	268 → **296억원**
문화콘텐츠펀드 조성	800 → **1,200억원**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6,548 → **7,360억원**
뿌리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248 → **278억원**

소상공인 · 비정규직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확대	1.2 → **2.0조원**
소상공인 사관학교	**253억원(신규)**
전통시장 특성화지원	189 → **509억원**
창업희망 천년상인 무상점포지원	**100개**

근로자 고용안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원금	1.2 → **2.0조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253억원(신규)**
실렵금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189 → **509억원**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 제도 도입	100개(신규)

내년 예산안 들여다보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직후 예고했던 대로 과감한 예산안이 나왔다. 18일 발표된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은 균형재정을 잠시 포기하더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악순환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

정부 ‘축소균형 악순환’ 극복 의지

일자리 관련예산 1조1천억 늘리고

줄이려던 SOC도 7천억이나 불어

반값등록금·어린이집 171개 확충

박 대통령 ‘맞춤형 복지’ 본격 시행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액… 추경 이상의 재정 동원 =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액수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76조원이다. 금액으로는 올해 예산안보다 20조원 많다. 전년 대비 20조원 수준 증액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당초 지출액을 올해 예산보다 12조원 가량 늘리려던 계획이었으나 경기여건을 감안해 20조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8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더 풀겠다는 뜻이다. 과거 추가경정예산의 지출규모가 2008년 4조6000억원, 2009년 6조7000억원, 2013년 5조3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추경 규모(5조~6조원)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가 웬만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도 절박하다는 얘기가 된다.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당분간 감내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금 적절히 대응해야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 문턱서 좌절하는 오류를 고친다”며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두 가지를 두고 고심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확대해도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정지출이 가계소득과 기업활동으로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실업크레딧’ 도입 등 생활안정 3종세트 신설… 안전예산 확대 = 내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과제도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일자리 지원예산은 종전의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신설사업으로는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3종세트’가 있다.

생활안정 3종세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이 새로 도입됐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월 6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방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3년간 퇴직금여적립금의 10%, 자산운용 수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줄어드는 추세였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올해의 23조7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이를 통해 지역공약, 특화프로젝트, 행복생활권 사업 등을 궤도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판교 창조경제 밸리 육성 등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7조1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국공립어린이집 171개 확충, 기초연금 본격 시행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맞춤형 복지도 상당 부분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졌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등으로 국민의 안전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린 것도 중요한 변화다. 정부는 이 돈을 지자체의 소방장비 구입에 지원하거나 학교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전용할 계획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내년 1인당 세부담 546만원… 4만원↓

내년 국세수입전망치 2.5%만 늘어

소득세 5.7%… 법인세는 0.1% 증가

관세, 환율하락·FTA효과 5.1% 뚝

증기 조세부담률 전망 (단위 : %)

	’12	’13p	’14	’15	’16	’17	’18
조세 부담률	18.7 (–20.2)	17.9	18	17.5	17.7	17.7	17.9
국민 부담률	24.8 (–26.8)	24.3	24.8	23.9	24	24.1	24.2

*’14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GDP 신계열 기준으로 산출(괄호 안은 GDP 구계열 기준)

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약 546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221조5000억원에 지방세 추정 규모를 합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는 올해 216조5000억원에 비해 5조원, 2.3% 증가에 그쳤다.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증가액이 총국세 증가액 5조1000억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수를 올해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57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개소세도 올해보다 29.6% 늘어난 7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2014년 예산 대비 0.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7.4%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

법인세 예산증가율도 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올해보다 0.1% 증가한 46조원으로 예상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경기 침체에 따른 유류 소비 감소로 올해 예산에 비해 0.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관세는 환율 하락과 FTA 체결 효과로 5.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민의 세부담은 1인당 4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지방세 추계는 올해와 비슷한 54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세 221조5000억원에 지방세 54조원을 더하면 총 275조5000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42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546만원 수준이다. 올해 세부담 규모는 국민 1인당 55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됐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

박상영 기자 sypark@

눈길 끄는 이색예산

연예인 지망생 권익보호·웹툰 창작비 지원

노인요양시설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軍 부대 안전사각지대엔 CCTV도

18일 발표된 2014년 예산안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웹툰 창작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이색 사업이 많이 담겨 있다.

우선 연예인 연습생과 지망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눈길을 끈다. 연예기획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연예인 연습생과 지망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 예술인 맞춤형 교육과 심리·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웹툰 창작 지원사업에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누구나 웹툰을 그려볼 수 있도록 전문가용 태블릿과 포토샵 등 웹툰 창작장비를 주요 기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안전과 복지 관련 사업도 눈에 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노인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47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요양시설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지원도 새롭게 진행된다.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북토큰’을 무료 배포해 책을 구매하고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에 8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병영 생활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4개 사단에만 지급하던 방탄복을 전방 GOP 11개 전 사단에 보급하고, 격오지 부대 안전사각지역에는 CCTV를 설치한다. 또 GOP 근무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성교육도 지원한다.

아울러 군내 성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GOP대대 중심으로 늘리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과 인권상담관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낙하산·파벌싸움 '막장 KB' 주연 …1년 만에 파국


임영록 KB금융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임영록 회장 결국 해임

林 국민은행 인사 개입…李와 마찰
주전산기 교체 싸고 갈등표출 '공멸'
회장·행장 막강권력 견제장치 없어
제2 내분사태 또 발생할 수도
회추위 차기수장 선출 우려 목소리

지난 4개월간 논란이 돼 온 KB금융 내분 사태가 임영록 회장의 해임안 의결로 일단락됐다.

막장극의 주인공이었던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취임 1년여만에 물러나면서 KB금융은 경영진을 새로 구성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차기 수장을 선출하는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관피아, 연피아, 금피아 등 회장이나 행장의 막강한 금융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연·지연의 줄대기 문화가 반복되면서 CEO 리스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18일 새벽 서울 중구 KB금융지주 명동본사에서 열린 임영록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 모피아와 키피아의 갈등 = 임 회장은 흔히 관피아로 알려져 있지만 낙하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행정고시(20회)에 합격한 후 재정부 금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2차관을 거쳐 2010년 KB금융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작년 7월 모피아 논란 속에 KB금융 회장에 올랐다.

KB금융 수뇌부 내분 사태의 근본 원인은 관치금융에 따른 낙하산 인사와 파벌싸움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해 온 모피아 출신 임영록 회장과 박근혜 정부 들어 파워 세력으로 자리잡은 키피아(금융연구원 출신)들의 이건호 행장이 파워게임을 벌인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낙하산 인사가 많다 보니, 파벌싸움과 줄대기도 KB금융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임 회장은 평소 지나친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이 전 행장도 이때부터 참지 못하고 그의 절대 권력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것이 KB내분사태 갈등의 배경 된 IT본부장 인사 마찰이다.

◇ CEO 견제 장치 마련해야 = KB금융 이사회는 오는 19일 임 회장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곧바로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KB금융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회추위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되며 내·외부의 후보군 중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내부 후보는 전 계열사 상무급 이상 임원이며 외부 후보는 주주와 사외이사 등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다.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지난 4일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받고 자진 사퇴한 이 전 행장의 후임을 뽑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은행장은 KB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계열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선정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금융지주사 구조에서 수장을 뽑는다면 '제2의 KB내분사태'는 또 벌어질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지주사 체제는 옥상옥 구조로 돼 있다"라 "회장과 은행장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제2의 KB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사퇴 종용·격론 해임안 의결 긴박했던 하루

내일 임시이사회…후속조치 논의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해임이 의결되기까지 하루가 긴박하게 돌아갔다.

KB금융 이사회는 17일 저녁 6시부터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 모여 임 회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 사외이사들은 이 자리에서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에 대해 해임 결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임 회장을 해임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며 그의 해임안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경재 의장과 나머지 사외이사들이 이사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압박과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데다 임 회장이 끝까지 버틸 경우 KB금융의 경영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안 의결로 뜻을 모은 이사회는 임 회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이날 밤 9시께 이사회 멤버인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과 김영진 서울대 교수가 그의 자택을 방문해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

그러나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금융당국에 맞섰던 임 회장은 끝내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사외이사들이 최후의 설득에 나섰지만 사퇴 거부와 함께 법정 소송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사외이사들은 자정께 명동 KB금융 본사에 다시 모여 최종적으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고 7대 2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이 의결됐다. 이날 이사회가 해임안을 최종 의결하기 전 사실 확인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혼선을 빚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사회의 해임안 의결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을 잃게 됐다. 다만 주주총회 의결 사항인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사회는 오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kimmj@

KB금융 내분사태 일지

2013년	
10월 31일	국민은행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주전산시스템으로 유닉스 선정
11월 11일	유닉스 전환 경영협의회 의결
12월	유닉스 전환 벤치마크테스트(BMT) 수행
2014년	
4월 14일	한국IBM 대표, 이건호 행장에게 수정 가격제안 이메일 발송
4월 24일	주전산기 전환사업 추진 계획 이사회 통과
4월 28일	은행 감사팀 감사 착수
5월 16일	주전산기 관련 보고서에서 전환 리스크 축소한 사실 적발한 감사보고서 작성
5월 19일	이사회, 임시 이사회서 감사보고서 채택 거부 행장 이사회 개최 결과 및 감사보고서
5월 30일	임시 이사회, 금감원 검사종료 시까지 전산교체사업 보류
6월 9일	금감원,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 행장에 중징계 사전통보
6월 23일	임시 이사회, 한국IBM 공정위 신고 결정
8월 22일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경징계 결정
8월 22~23일	KB금융그룹 경영진 템플스테이 행사. 이 행장 조기 귀가
8월 26일	국민은행, 금감원 징계받은 전산 담당임원 3명 검찰 고발
9월 4일	최수현 금감원장, 임 회장과 이 행장 중징계로 상향조정. 이 행장 즉각 사임. 회장 사퇴 거부
9월 10일	임 회장, 금감원 중징계 반박하는 기자회견
9월 12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임 회장 '직무정지 3개월'로 징계수위 상향 확정
9월 13일	금융위·금감원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 열고 임 회장 및 핵심 관련자 검찰 고발 결정
9월 15일	KB금융 사외이사, 긴급 간담회 열고 임 회장 해임안 상정 논의
9월 17일	이사회 해임 결의



KB사태 4개월 끌어 혼란 키우고 방관하고…
금감원·이사회는 뭐했나

KB금융그룹 이사회가 지난 17일 임영록 회장의 해임을 결정하며 KB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처리한 감독당국과 KB금융 이사회에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개월 가까이 KB사태를 끌어와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이사회는 사태를 방관해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경징계로 낮췄다. 제재심의위는 두 달간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혼란만 더 키우다 2개월을 흘려보냈다. 제재심이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했지만 내분 사태는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격화했다. 이 결과를 받아 든 최 원장은 또다시 2주간 최종 결정을 늦추다 급기야 제재심 결과를 뒤집었다. 금융위도 최 원장의 문책경고 건의를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3개월'로 끌어올렸다. 이 같은 결정에 과거 금융당국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린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한 불신만 가져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KB사태를 방치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사회도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선 배제돼야 한다는 견해 또한 나온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연이은 'CEO 비극사'…편치 않는 KB 수장

KB금융 이사회가 임영록 회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KB금융그룹과 국민은행의 CEO가 모두 불명예 퇴진하는 비극사가 이어지게 됐다.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역대 최고경영자(CEO)는 모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리딩뱅크'라던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위상이 무색할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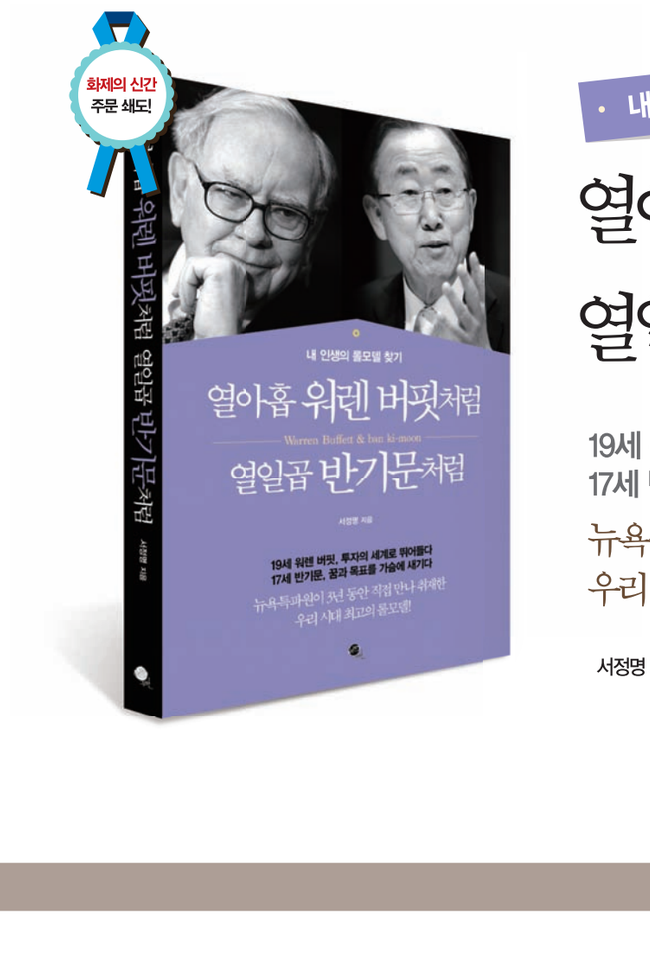
KB금융과 금융당국의 악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돼 초대 통합은행장으로 출발한 김정태 전 행장은 3연임을 꿈꾸다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제재를 받았다. 그해 9월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행장은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김 전 행장은 다음달 말 임기종료와 함께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지난 4일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여러차례 보고를 받았음에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 행장은 경고를 받은 즉시 사퇴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KB금융 CEO 잔혹사

	연도	징계수위	내용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2004년	문책경고	회계기준 위반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2009년	직무정지	파생상품 투자손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2010년	문책경고	카자흐스탄 BBC은행 투자손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2013년	주의적경고	ISS보고서 사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2014년	주의적경고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2014년	문책경고	내부통제 위반
임영록 KB금융 회장	2014년	직무정지	주전산기 교체 감독태만, 인사개입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더〉로 확인하세요.



• 내 인생의 롤모델 찾기

열아홉 워렌 버핏처럼
열일곱 반기문처럼

19세 워렌 버핏, 투자의 세계로 뛰어들다
17세 반기문, 꿈과 목표를 가슴에 새기다

뉴욕특파원이 3년 동안 직접 만나 취재한
우리 시대 최고의 롤모델!

서정명 지음 | 360쪽 | 13,500원

워렌 버핏과 반기문의 성공 노트
"나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코 돈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거나 사람을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좋아하고 존경할만한 사람만을 사귀십시오." -워렌 버핏

"인생 최대의 지혜는 친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드세요." -반기문

무한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정부 '코드 맞추기' 한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기술금융의 성공조건

-금융권 보신문화 바꾸자

① 기술금융 왜 필요한가
② 中企·벤처 지원 나선 정부
③ 은행권 부실책임 가중
④ 녹색금융 전철 밟지 말아야
⑤ 전문가 대담

기술금융은 기술력 있는 신생 기업이 담보 없이도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함이 골자다. 그만큼 기업과 은행의 상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최근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처럼 기술금융이 현 정권에서 반짝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기술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로 기술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연내 기술DB 1000만건 제공
기술금융 활성화 본격서비스 돌입

은행들 기술평가팀 확대·개편 불구
시스템 대부분 걸음마 수준에 불과
"자본시장 기능 확대해야" 목소리

◇금융당국, 연내 기술 관련 데이터베이스(DB) 1000만건 제공… 기술평가 시스템 활용이 관건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들이 기술평가 시스템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즉 시중은행들이 전체적인 기술을 평가하는 인력, 조직 등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기술기반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TDB는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 평가 시 필요한 기술 동향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TDB는 32개 민·관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술·시장정보 등 약 400만건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금융위는 올해 안에 1000만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들의 기술평가 시스템은 일부 시중은행을 제외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설한 IB지원부 내 기술평가팀을 지난 7월 확대·개편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기술평가 시스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요 업종의 산업현장 기술전문가 6명으로 기술평가팀을 신설한 이후 평가 수요가 많은 기계, 금속, 화학 등의 분야에 4명을 추가 채용해 현재 총 10명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운용 중이다. 영업점에서는 기업 고객수가 많고 여신 규모가 큰 공단형 영업점을 중심으로 IP(지식재산)·기술금융 거점점포 20개를 선정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산업기술평가팀 10명, 기술전담심사역 24명 등 전담인력 34명을 배치해 은행 내 기술금융역량 강화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하반기에도 기술금융 지원과 투자 확대를 위해 종합 지원 상품인 창조금융 대출 패키지를 마련, 연말까지 8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상품의 실적 평가를 KPI체계에 새롭게 추가하고 취급액의 최대 150%까지 영업점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성과평가체계도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여신심사부와 중소기업부, 상품개발부 등에서 유기적으로 기술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협은행은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준비 중이다.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자본시장 기능 확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해야 =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처럼 기술금융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유인이 적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정부 코드 맞추기식 콘텐츠인 녹색금융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이듬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주목받았다.

고객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면서 금융회사의 자금운용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친환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융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은 한목소리로 녹색금융을 경영 목표라고 외쳤다.

그러나 녹색금융은 2009년 4월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영역의 금융사가 모여 녹색금융협의회까지 만들었지만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관심에서 멀어져 2012년부터 신상품 출시도 뜸해진 상태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기술금융은 단순하지 않고 잠재부실 가능성도 크다"며 "은행이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정부 주도의 기술금융 정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국면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송 실장은 "기술금융은 무형자산의 성장성을 보는 것으로 일반 중소기업 대출과 다른 면이 많다"며 "시중은행들이 전문성, 인력, 조직, 정책 등 전체적인 기술평가 시스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대출순환구조를 탈피하려면 여신기반에 의존하기보다 자본시장을 통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술금융 펀드, 기술금융 거래 등 기술금융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시장을 통해 기술금융의 자본시장 기능을 확장,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금융 비즈니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실장은 "특정 기술이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 기술보증기금에 중첩된 기능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금융이 초기 단계인 만큼 시중은행들이 독립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기술금융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기술금융' 몸사린 은행…규제풀어 氣 살려라

'기술평가 수수료' 정부 한시적 지원 방안 거론…공공·민간자본 결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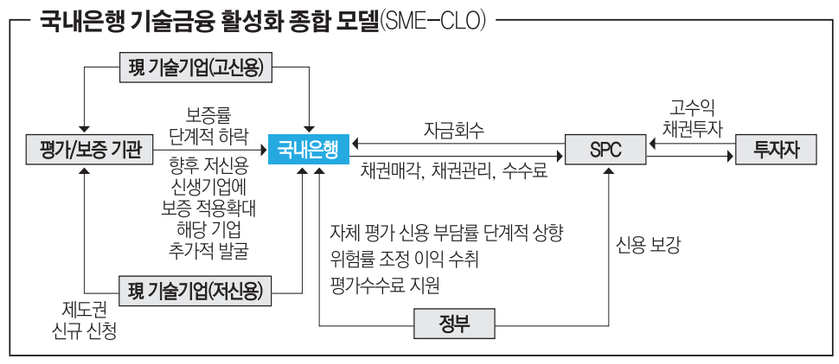
기술금융 활성화의 '키'는 은행권이 쥐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느냐가 흥행을 좌우한다. 그러나 기술금융을 대하는 은행권 표정은 여신잔액 증가에 따른 환호성이 아닌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울며 겨자먹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은행권 보신주의 지적에 시행은 하고 있으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은행의 자체 평가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마다 기술평가기관(TCB)에 건당 100만원의 기술평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당국은 상이한 가격체계에 따라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며 은행들을 달래고 있지만 여신 관계자들은 낮은 이자마진을 감안하면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한다.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정도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해 국내은행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기술평가 수수료 100만원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은행들이 인프라를 구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기술평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지원과 투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책금융 단독 지원이 아닌 민간 공동투자가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영국의 경우 민간 기술금융 기반을 심화·발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역시 민간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SBIC(민간 금융투자자가 지분을 투자하면서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자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정책금융제도)를 통한 재간접투자펀드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지원한다.

채권의 유동화를 통해 은행의 자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SME-CLO(Small&Medium Sized Enterprises)다. SME-CLO은 기술금융 대출채권을 풀(pool)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매각하는 구조다. 정부의 신용 보강을 더한다면 매매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호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정부는 기술금융의 민간시장 활성화와 함께 수혜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초기 신생 기술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다"며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투자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WTO는 '300% 수준'…정부안과 큰 격차

쌀 관세율 513% 확정

당초 예상보다 높은 고관세율
정부안 관철되면 경쟁력 가능
회원국 설득 철저한 논리 필요



18일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현안관련 당정간담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 농민단체 회원들이 난입해 쌀개방 반대 손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입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WTO 측에서는 300% 수준의 관세율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의 쌀 관세율 적용 계산법에 따르면 300%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측의 철저한 논리 준비가 없으면 현실상 정부안 협상 타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면 관세율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회원국들의 본격 검증을 거치게 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것처럼 관세율은 UR 협상 당시 기준연도인 1986~88년 국내 쌀값과 국제 쌀값의 차이에 10%의 감축률을 적용해 산출된다.

이번에 정부가 정한 513%의 관세율은 UR 협상 당시인 1986~88년 중국산 수입 쌀 평균 가격과 당시의 우리나라 국내산 쌀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 연도인 1986~88년보다 훨씬 높아져 상대적으로 보호 효과가 큰 종가세(수입가격에 일정 비율로 관세 부과)를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달러 환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매년 평균치 또는 3년 평균치를 적용한다.

정부가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그만큼 높게 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WTO와의 앞으로 협상은 물론 다른 나라와 체결하게 될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관세율이 다시 다뤄지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고관세를 제시하더라도 회원국이 이를 거부하면 장기간에 이르는 줄다리기 협상이 불가피하다. 과거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 관세율을 검증하는데 2년가량 소요된 만큼 우리나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책정한 관세율을 WTO 회원국과의 검증과정에서 무난하게 관철할 수만 있다면 국내 쌀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율이 504%만 돼도 2015년 수입쌀의 국내 판매가격은 중립종이 80kg에 48만원, 장립종은 29만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국내산 쌀 가격 16만~18만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

삼성전자·직업병가족대책위 '제3의 조정위' 구성키로 합의

백혈병 보상 협상 속도날 듯
"재발방지부터" 반올림 유보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 제3의 조정위원회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5월 대화 재개 이후 약 4개월간 평행선을 달리던 백혈병 보상 관련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8차 대화에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객관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3의 조정위원회 설립에 의견을 모았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 3주체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외부 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취지다.

가족대책위는 삼성전자의 선보상안을 받아들인 송창호, 정애정, 정희수 씨 등 반올림 협상단 소속 6인으로 구성됐다.

가족대책위 측 정애정씨는 "협상이 4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양측 의견을) 융합해 줄 제3의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측은 다음 대화에서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2주마다 진행되는 대화 간격을 줄이고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황상기씨와 김시너씨 등 2명의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로부터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받은 뒤 조정위원회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올림 측 공유정옥 간사는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정한 이후 조정위원회 구성을 논의해야 하고 지금은 조정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7차 대화부터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선보상안을 수용한 가족대책위와 나머지 피해자 가족 2인 등 두 개의 협상 채널로 나뉘어 삼성전자와 대화를 진행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외환銀 '무더기 징계' 착수… 노조 '強대強' 맞대응

오늘부터 898명 수위 심의
노조 조합원 구제기금 마련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과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소집, 사상 최대 규모의 직원 징계에 착수했다. 이에 노조는 징계 조합원 구제기금을 마련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예정대로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인사위를 열어 직원 89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3일 노조가 개최하려다 무산된 임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려고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인사위에 회부했다. 직원들의 무단이탈이 '고객을 볼모로 삼았다'는 외환은행의 인식에는 하나금융지주도 공감하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는 외환은행의 징계 배경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조직 화합을 위해 최대한 직원들을 다독이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이날 새벽 하나·외환은행 직원들과 북한산 둘레길 산행을 함께하면서 조기통합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징계에 부담을 느낀 노동조합이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사측의 기대와 달리 노조의 강경 대응 속에서 내분 조짐도 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징계 대상자가 많은 지방 조직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집행부 내에서도 내분설이 흘러나오는 등 노조의 동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회의에서 사측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징계 문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풀겠다"고 말했다. 직원 징계를 지렛대로 삼아 노조를 협상장에 끌어들이겠다는 사측의 전략에 '강(强)대 강(强)' 기조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경 대응 기조와 별개로 노조 내에서 불거지는 파열음은 커 향후 노사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철우 기자 acw@

금리인하 하소연 하는 은행장들

이주열 한은 총재 만나
수익성 악화 불만 토로

은행장들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하소연했다.

이 총재는 17일 시중은행장 7명을 초청해 금융협의회를 열었다. 이 총재는 격월마다 은행장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특히 전달 14일 기준금리를 내린 후 처음 열리는 회의여서 금리인하가 화두로 올랐다. 이날 참석한 한 은행장은 "기준금리 인하 후 한 달간의 손익 변화 및 전망, 기타 금리인하가 은행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금융권 각종 사건·사고와 보신주의를 지적하는 정부 눈치보기로 대놓고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던 은행장들이 이 총재와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장들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발언을 많이 했다"며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찔끔, 예금금리는 왕창 내린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예대금리 상황을 보면 은행들의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 수익의 기본인 예대금리차(총대출금리-총수신금리)는 지난 7월 현재 연 2.48%포인트로 집계, 2009년 10월(2.45%포인트) 이후 4년 9개월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진영 기자 mint@

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료비 더 내야

복지부, 내달부터 확대 시행
초진 4000원서 4500원으로

10월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같이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우선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앞서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를 받으려면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진찰료가 오르면 환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에 복지부는 충격완화 차원에서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 하는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희준 기자 h9913@

"구글 장악력 확대… 국내 ICT 역차별 해소 나서야"

새정치 장병완 의원 토론회 개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구글이 한국의 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해외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갖추기 위해 규제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ICT 산업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유향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이 좌장을 맡고 박종수 고려대 교수와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장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살펴보면 박 교수는 '플랫폼 산업에서의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발제문에서 동영상(유튜브), 모바일 OS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시장에서는 구글 등 해외기업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내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해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이 용이한 플랫폼 시장에서는 우리 정부도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법제도에 해외기업 규제 적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도 '구글 독점의 법적 쟁점과 국내사업자 역차별 문제' 발제문을 통해 구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소장펀드 가입자격 확대
총급여 8000만원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출시 반 년을 맞았음에도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소장펀드 가입률이 전체 근로자(1400만명)의 2.0%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소장펀드 가입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나성린 의원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 대상 확대로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과 장기 투자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말 그대로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처음 소장펀드가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소득 공제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금융투자 상품이란 점에서 세제 혜택을 노리는 젊은 직장인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상품 출시 반 년이 지난 현재 소장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은 모습이다.

문선영 기자 moon@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식이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열린 가운데 직원들이 대포통장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악용 원천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우본, 대포통장 뿌리뽑는다

제3자 동행 통장발급 금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본은 18일 대포통장 악용 원천 차단을 위해 마련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 대포통장 피해 건수가 2만여건, 피해액은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권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대포통장 사전 방지를 위해 우체국 통장개설 절차를 강화한다.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의심거래자 유형은 통장개설이 금지된다. 제3자를 동행해 통장 발급을 요청하거나 본인의 주소지를 잘 모르는 경우,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및 과거 대포통장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새로 개설되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한다. 고객이나 휴면고객의 요구불계좌 개설 요구 시 원칙적으로 통장개설만을 허용토록 한다.

현금·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연 발급된다. 통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의심계좌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통장을 지급 정지 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통장개설 절차가 강화돼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ShinhanCard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카드 금융업계 최초 3년 연속
브랜드 평가 Triple Crown 달성



BIG to GREAT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결실

한 두 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3년 연속 3관왕은 아무나
이룰 수 없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Triple Crown!

앞으로도 1등 신한카드의
GREAT한 도전들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한국표준협회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1위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1위

시장 점유율 1위 카드사
www.shinhancard.com

BIG to GREAT 신한카드

신한금융그룹 | 신한은행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현지 합작어업 등 구조개선… 국제적 조업규제 뚫어라



1. 중국 수산물 수입시장 공략
2. 수출다변화·양식어업 육성
3.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과 수출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원양어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불법어업국(IUU) 통제, 자원 자국화로 인한 조업 어장 축소 위협에 직면했고, 대내적으로 어선 노후화와 원양선사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성장 속도에 비례해 빠르게 성장했다. 1958년 6만4000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업 수출액은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해 1971년에는 총 수출액 10억6760만달러 중 5510만3000달러를 차지하는 등 산업 전체 수출액의 5%를 넘은 적도 있다.

1960~70년대 우리나라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경제발전의 큰 역할을 했던 원양어업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수출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산물 자급률에 크게 이바지했다. 전체 수산업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생산액과 생산량 비중은 각각 18.1%와 15.7%이며 2012년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수출액도 7억1200만달러로 전체 수산업 수출의 37%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의한 IUU 어업 통제 강화, 불법어업 미조치국에 대한 국내법 개정 요구 등 대외적 여건 악화로 원양어업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스페인,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등 10개국을 불법어업 미조치국으로 지정했고, EU도 가나, 퀴라소와 함께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또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현상으로 현지 투자에 기반을 둔 쿼터 확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태평양 8개 도서국이 참여하는 나우루 협약 체결 이후 관련국의 영향력이 확대돼 입어 조건이 가공공장 투자, 자국 항만 의무 입항, 어업경계 획정 등 까다로워졌다.

신 보호주의로 각종 비관세 장벽도 심화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수산물 교역 규모가 2010년대에도 매년 2.3%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IUU 통제와 위생검역을 자국 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외적 여건 악화와 더불어 원양선사의 경영악화로 원양어선 척수가 줄고 노후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359척에서 344척으로 15척 줄고, 원양어선 노후화도 92.4% 진행됐다.

어선원의 고령화도 심화돼 선원 중 25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40세 이상 선원 비율은 증가해 2013년 기준, 전체 선원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원양 어업도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IUU어업 규제 강화와 관련해 서부아프리카 트롤어업이 위기에 봉착해 지속적 어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합작어업을 포함한 구조개선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중서부 태평양 어장에서는 나우루 선언 이후 자원관리 규제가 강화돼 해양수산 국제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입어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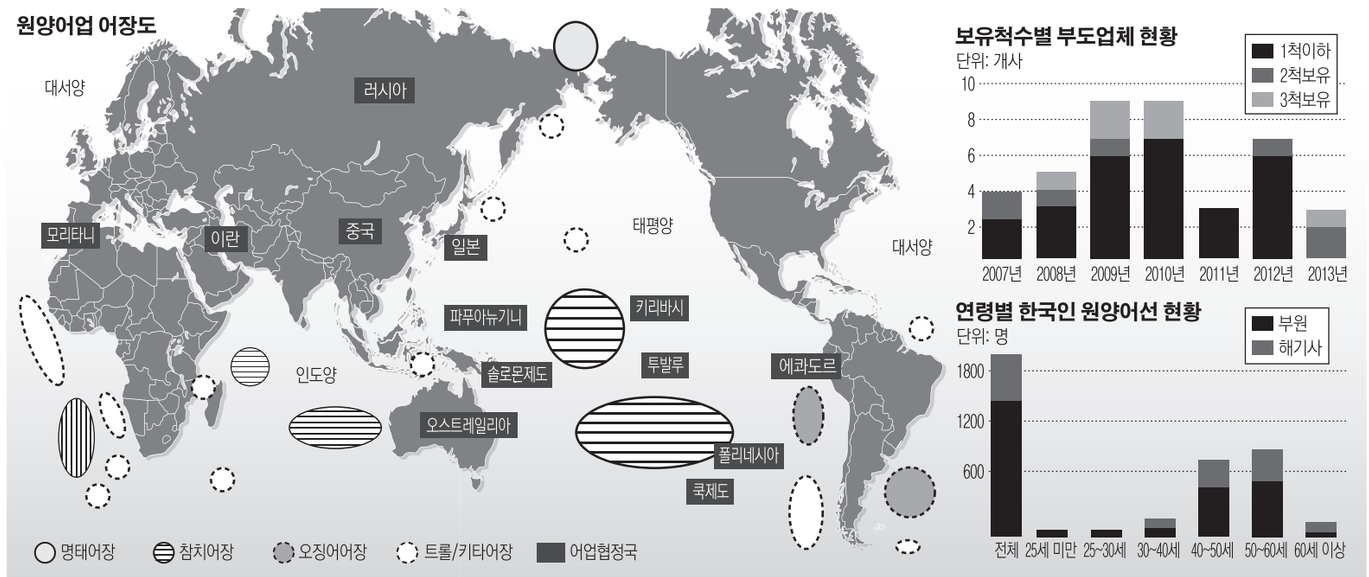
중소 원양기업의 재무 안정성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2년 원양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이 각각 1.1%, 3.9%, 0.8%로 악화일로에 있고, 부채비율도 243.8%로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협 정책자금 대출 시 원양 냉동·냉장 수산물의 담보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 합작 진출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양수산부도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불법조업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위성과 어선위치추적장치(VMS)로 원양어선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조업감시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원양어업기지를 수산물 생산기지로 특화해 양식·가공 등을 포함한 해외 수산물 생산량을 2017년까지 10%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원양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와 공동으로 직거래 행사와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원양산업 전반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 원양선사에 대한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운영 자금 규모를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금 상환기간도 4년으로 연장해 유류 구입, 선원임금 지급, 선용품 구매 등 어업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기에 공급,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



한때 수출효자 산업으로 각광
어선 노후화·어선원 고령화 심화
불법어업국 통제·비관세 장벽
안팎으로 큰 어려움 겪고 있어

원양어업기지, 수산물 생산 특화
대형마트와 공동 직거래 행사 등
중소 원양기업 전방위 지원 나서야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전문가 제언

정부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 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가들은 FTA 체결 등 대외 개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수산물 수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홍석 연구위원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 증가 추세와 함께 수산물 교역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출을 국부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장시현 수산수출팀장은 어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수산물 수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팀장은 "김 같은 경우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 국내 소비만으로 소화되지 않아 수출이 되지 않는다면 어민들의 소득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출을 활성화하면 공급 과다 품목의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와 면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팀장은 "일본이 수출 시장의 40%를 차지해

> 수출효과 극대화하려면
> 가공·유통 등 공정 통해
>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해야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중국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산경제연구원 김우경 연구원도 "요즘 중국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 사람들이 어떤 수산물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와 함께 한국 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조사와 함께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실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아울러 정부가 aT와 한국수산무역협회와 수협 등 분산된 지원 조직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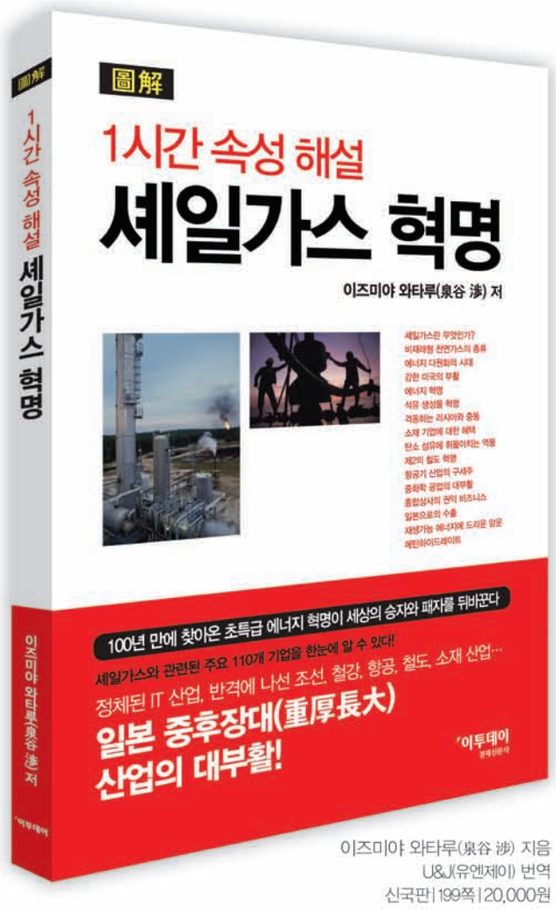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수산물 수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하려면 계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양식 분야의 활성화가 돼야 한다"며 "또 수산물 자체로 수출하기보다 이를 가공·유통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도 수출 물량 확보와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장 연구위원은 "노르웨이는 자국 수산물 소비는 적지만 고등어와 연어 등 수산물 물량 확보에 힘써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0대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을 정했지만 대부분 국내 내수품목과 겹쳐 있어 이를 어떻게 수출로 전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최종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최종재 상품 중심의 수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의 바이어를 통한 수출에서 우리가 직접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우량 中企 대출만 늘리는 은행들

최근 2년새 20조 증가했지만 담보·보증 비중 58.4%
금감원 "담보 부족해도 우수한 기술 자금 지원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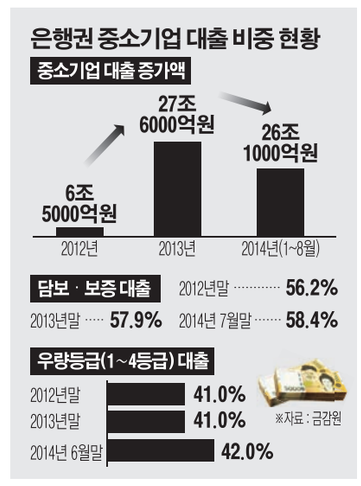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늘었지만, 우량기업에만 집중돼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18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점검했다.

조영제 부원장은 이날 "최근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담보·보증대출이나 우량등급 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감소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2012년 6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7조6000억원, 올해 1~8월 26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중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은 2012년말 56.2%, 지난해말 57.9%, 올해 7월말 58.4%로, 우량등급(1~4등급) 대출 비중 역시 2012년말 41.0%에서 올해 6월말 42.0%로 증가했다.

조 부원장은 "정책당국이 그동안 담보·보증 위주로 편하게 영업해 왔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 타파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 오히려 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등 여전히 타성적인 방식대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그는"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중인 기술금융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하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의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해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면책하고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은행 현장에서의 이행상황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kimmj@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나은행,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18일 오전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평소 궁금한 내용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외환·하나銀 임직원과 산행

"통합은 대박이다"

오늘 북한산 둘레길서
추후 왕릉 소풍도 제안

"(하나·외환은행)통합은 대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오전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임직원 90여명과 북한산 둘레길 산행을 가졌다. 이번 산행은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에 대한 현장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이날 산행은 은평구 소재 하나고 정문에서 오전 6시반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1시간 넘는 산책과 함께 대화가 오갔다.

김 회장은 행원시절 영업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영업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조직이 흥하면 그 혜택은 직원들에게 돌아간다"며 "나도 행원시절 큰 손 때문에 주판알을 튕기기 힘들었지만, 결국 영업에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했고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 라는 무대에서 배역은 바뀐다. 배역 맡은 기간 동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추후 하나은행·외환은행 직원들과 왕릉 소풍도 진행하고 싶다는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산행에 참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깜짝 추첨 이벤트를 펼치는 등 직원들과 가깝게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산행이 끝난후 임직원들은 "통합은 대박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조찬 시간을 가졌다.

산행해 참석한 한 직원은 "회장님과 가까이 소통하며 통합 이후 불안감이 다소 희석되어 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신한은행, 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신한은행이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신한은행은 17일 중구 조선호텔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무역보험기금 100억원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진원 신한은행장과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수출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미흡해 현지 공장 설립, 기계설비 도입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신한은행은 해외 진출 초기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던 외부 사업성 검토 비용과 보험료의 일부를 업체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무역보험공사 또한 부보율 상향과 보험료 인하 등의 우대 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수출금융 지원 조건과 대상 국가가 확대되어 향후 약 4000억원의 중소·중견기업 중장기 수출금융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하는 창조금융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금감원, 보험대리점 고객 정보유출 실태 점검

내부통제·보안 관리 취약
연내 교육 후 내년에 착수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에 대해 대대적으로 고객정보 유출 검사를 한데 이어 보험대리점도 점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이춘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에 보낸 공문에서 보험대리점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보험대리점이 내부통제 및 IT(PC,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보안 관리가 취약해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협회는 올해 6월말 기준 소속 설계사가 100명 이상 500인 미만인 법인대리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유 목적을 달성한 고객정보의 일괄삭제 △내부관리규정 정비 △고객정보보호 조직 설치·운영 △고객정보 유출여부 주기적 점검 및 고객정보 보호 교육 △대리점이 관리하는 업무용 PC와 보험사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PC 구분 관리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대리점을 불러 가이드라인을 주고, 내부적으로 파악 후 잘 안된 부분의 이상을 받아볼 것"이라며 "대형·중형 보험대리점을 가리지 않고 점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형 보험대리점은 이달 중순 고객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회사는 연말까지 교육을 완료하게 하겠다"며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저축銀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

대출 상품 취급·보험판매도 가능

앞으로 저축은행도 카드사와 보험사의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 판매가 가능해 진다. 또 내년 상반기 부터 점포 설립이 자유로워 지고 충당금 적립 기준도 완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3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돼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BC카드와 제휴를 통해 이뤄지지만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카드사 제휴 없는 교통카드 기능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등의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 상품도 허용해 줄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은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점 설치시 증자 의무가 사라지고, 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돼 6억원 이하 여신중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을 타파하고 관계형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NH농협은행, 경남 13개 산업단지와 상생협약

NH농협은행은 17일 창원 상남동 리베라컨벤션에서 경남 13개 산업단지와 상생협약식을 가지고 발전기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정환두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최충경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장, 13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장과 박석모 농협은행 경남본부장등이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 체결로 농협은행은 대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감정평가액의 90%까지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최대 1.6%까지 우대한다. 기업경영컨설팅 또한 신청시 무료로 제공한다.

농협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창원국가산단, 양산어곡산단, 진주정촌산단 등 13개 대표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수 3649여개, 고용인원 14만명으로 경남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수의 90%, 고용인원의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농협은행측은 설명했다.

박석모 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은"이번 협약으로 산업단지내 입주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협은행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더욱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명사초청 특별강좌 서비스 제3편]

더존 Good,Better,Best IT그룹 DUZON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百年之大計 더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사초청 세무·회계·경영 실무강좌 무료 공개!

ERP, 그룹웨어 등 경영정보화 솔루션을 보급하여 우리나라 기업정보화를 선도해온 더존이 세무, 회계 및 경영관리 분야의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실무이론지식을 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신 IT기반으로 실무강좌를 제작하여 무료로 공개합니다.
더존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명사초청 세무 · 회계 · 경영 실무강좌 무료 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법인세 실무, 부가가치세 실무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회계실무"와 "4대보험실무"를 더존 홈페이지에서 조건없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품강의 바로듣기! 더존 홈페이지 접속-팝업창에서 명사 초청 강좌 바로가기 클릭

※ PC뿐만 아니라 태블릿/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각 강좌는 주제별로 동영상 파일이 세분화 되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교재는 PDF파일로 무료 제공하므로 프린트해서 볼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공합니다.

www.duzon.co.kr |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인적성 검사에 역사에세이… 한국사 자격증 가산점…

하반기 채용 키워드는 '인문학'

지난 8월 스타트를 끊었던 2014 대기업 하반기 채용이 9월 들어 절정에 올랐다. 공채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한 채용 방식은 바뀌었다. 바로 '스펙 타파'와 '인문학 중시'다.

◇하반기 공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재계에서는 올해 대기업 하반기 채용규모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규채용 규모는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8.3%, '작년보다 감소한다' 28.6%, '작년보다 증가한다' 13.1%였다. 채용규모를 줄인다고 밝힌 기업들은 해당 업종의 경기악화와 회사 내부 상황 악화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주요 그룹들은 청년실업 해결과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작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삼성그룹은 올 하반기 약 50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모두 약 90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았던 삼성은 올 상반기 3500명 정도를 이미 채용했고 여기에 하반기 5000여명을 더하면 작년에 비해 500명 가량이 줄었다.

재계는 삼성 금융계열사 일부가 구조조정 중이라 신입사원을 아예 채용하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사들도 공채를 줄인 것을 감안하면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웃도는 수치라고 평가한다.

지난 8월 말 하반기 공채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현대자동차 그룹은 하반기 343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미 상반기에만 5310명을 채용했고, 하반기 수치를 더하면 지난해 보다 220명 늘어난 8740명을 뽑게 된다.

LG그룹은 하반기에 약 2000명을 채용한다. 작년 하반기(3000명) 보다 1000여명 줄어지만 상반기(1500명) 보다는 500명 늘었다. 지난해 총 5500명을 뽑았던 LG는 올해 35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포스코 3400명, GS그룹 1600명, SK그룹 1000명, 롯데그룹 1300명, 한화그룹 500여명, CJ그룹 900명, 신세계그룹 200명을 선발한다.

◇채용 키워드는 '인문학' = 하반기 공채는 '인문학'에서 당락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주요 그룹이 '스펙'보다는 역사와 한자 등 인문학적 소양을 묻는 문제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건 필기시험에 한국사 비중을 늘린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한국사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고, 직무역량 평가 때 역사 에세이도 반영키로 했다. 현대차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적성검사(HMAT)에서 역사 에세이를 출제키로 확정했다.

삼성 역시 역사에 대한 중요도를 높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12일 실시될 SSAT(직무적성평가)에서 역사와 인문학적 소양,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다수 출제될 것으로 전해진다. GS그룹과 CJ그룹도 지난해부터 필기시험에 한국사를 포함시켰고 한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객관식으로 출제한다.

인문학 전도사를 자처한 정용진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세계그룹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통찰력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색다른 공채시험을 도입했다.

대기업의 열린 채용 방식도 눈길을 끈다. SK그룹(22일 마감)은 취업준비생을 위해 지난 17~18일 'SK 탤런트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상담과 함께 프레젠테이션(PT)에서 합격한 지원자에게는 공채 시 가산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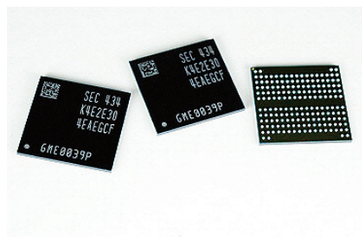
롯데그룹은 불합격자에게 면접전형별 평가 결과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주요그룹 하반기 공채 ※출처=각 사 취합

그룹	일정	채용규모(명)	특징
삼성	9월 22일~26일	5000	SSAT에 인문학 비중 높임
현대차	8월 27일~9월 12일	3430	인적성에 역사 에세이 출제
SK	9월 1일~21일	1000	열린 채용 시행. 시험에는 한국사 포함
LG	9월~	2000	면접시 별도의 영어 테스트가 있음
롯데	9월 2일~16일	1300	다양성 중심의 열린 채용
포스코	9월~	3400	한국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GS	9월~	1600	역사 인식 시험, GS칼텍스에서 전 계열사로 확대
한화	9월~	500	인적성 대신 심층면접 실시
신세계	9월~	200	인문학 측정시험 실시
CJ	9월 15일~25일	900	현대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인문학적 소양 평가
금호아시아나	9월 22일~10월 6일	1000	인적성검사에 한자시험이 꼭 있음

'20나노 6Gb 모바일 D램' 삼성전자, 세계 최초 양산



삼성전자가 세계 D램 시장 1위를 고수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에 돌입한다. 미세공정의 고도화로 경쟁업체의 추격을 원천 봉쇄한다는 의도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20나노 공정을 적용한 6Gb(기가비트) 모바일 D램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컴퓨터용 20나노 4Gb DDR3 D램을 양산한 데 이어, 이번에 모바일 D램까지 20나노 제품을 양산, 20나노 D램 시대를 본격화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IHS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세계 D램 수요(1GB 환산기준)는 263억4900만개로 상반기(217억1300만개)와 비교해 2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20나노 모바일 D램을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D램 수요와 맞물려 수익 창출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나노 모바일 D램은 기존 양산 제품보다 생산성을 30% 이상 높여 향후 하이엔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물론 웨어러블 기기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용량 모바일 D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번 20나노 모바일 D램 생산으로 시장을 함께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벌이고 선두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마케팅팀장 백지호 상무는 "이번 20나노 모바일 D램은 시장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모바일 D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가장 앞선 제품"이라며 "향후에도 프리미엄 시장은 물론 보급형 모바일 시장까지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솔루션을 선행 출시해 사업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17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미스터앤미세스 퍼' 매장에서 모델들이 500만~1000만원대 야상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롯데케미칼, 印尼 유화단지 2년째 지지부진

부지 매입에 큰 어려움… 필요 부지의 40% 정도밖에 확보 못해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추진 중인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부지 매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2년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포스코가 유화단지 예정 부지 인근에 제철소를 준공하고, 현지 시장도 "롯데케미칼이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18일 본지가 취재한 결과 롯데케미칼은 현재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유화단지 건설 과정에서 부지 매입에 문제가 있어 협의하는 단계"라며 "소유지가 당초 국유지 비슷한 공기업 부지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제철 용도의 부지여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이 따라줘야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8월 포스코와 합작 사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영 제철기업 크라카타우(Krakatau)의 제철공장 인근 부지 60ha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가격협상과 부지 용도의 문제로 매입 협상은 답보상태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2012년 2월 인도네시아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프타 크래커(NCC)를 포함해 부타디엔 14만톤, 폴리에틸렌 65만톤, 폴리프로필렌 60만톤, 에틸렌글리콜 7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유화단지 건설에는 총 100ha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롯데케미칼이 현재까지 확보한 부지는 40ha에 불과하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부지 매입이 어렵다고 프로젝트를 접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명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 여력은 국내보다 높아, 유화단지가 준공되면 생산 제품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전반에서 소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스와치 7개 브랜드 롯데백화점서 철수

입점수수료 놓고 갈등

세계 최대의 시계업체 스와치그룹이 롯데백화점 모든 점포에서 사라졌다.

18일 백화점 및 명품업계에 따르면 스와치그룹코리아는 입점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사가 보유한 론진, 라도, 미도, 해밀턴, 티쏘, ck, 스와치 등 7개 브랜드의 롯데백화점 매장을 모두 철수시켰다.

롯데백화점 측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매장을 정리해 지금 영업을 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스와치그룹이 자진철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점수수료를 놓고 유통업체와 브랜드 간 마찰은 흔히 볼 수 있지만, 다수의 브랜드를 동시 철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유통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스와치그룹은 올해 초부터 입점 수수료율을 6~7% 포인트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롯데 측이 거부해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스와치그룹코리아의 전체 매출에서 롯데백화점 비중은 5% 안팎에 불과해 굳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영업할 필요성을 못느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스와치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리미엄급 시계 브랜드인 오메가, 브레게, 블랑팡 등의 매장은 정상 운영 중이다. 스와치그룹은 현대, 신세계, AK 등 다른 백화점에도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백화점업계와의 기싸움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스와치그룹은 오메가, 브레게 등 초고가 명품부터 스와치 등 저가 시계까지 총 18개 브랜드를 보유한 스위스 시계업체다.

이선애 기자 lsa@

백화점업계 "제2의 몽클레르 찾아라"

미스터앤미세스 퍼·포체 등 입점… '프리미엄 아우터' 전쟁

영국 울리치, 이탈리아 파라점퍼스·포체·미스터앤미세스 퍼·몬떼꼬레, 프랑스 피레넥스, 캐나다 CMFR·노비스·무스너클…. 모두 올 겨울을 맞아 백화점에 새로 자리잡은 프리미엄 아우터 브랜드다.

지난해 '캐몽'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인기였던 캐나다구스·몽클레르 열풍이, 올해는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하는 '2차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18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이달 초 아시아 최초로 무역점 6층에 울리치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본점에 입점한 CMFR와 포체 매장도 국내 최초, 본점과 무역점에 들어선 에르노는 단독 매장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영등포점에 국내 최초로 몽클레르 메가숍을 열었고, 본점과 강남점에는 세계 최초로 미스터앤미세스 퍼 단독매장을 냈다. 본점·강남점·경기점 등에서는 몬테꼬레, 노비스, 피레넥스 등을 팝업스토어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본점에 파라점퍼스, 노비스, 맥케이지 매장을 잇따라 개점했다. 맥케이지는 단독매장이다. 프리미엄 패딩 편집샵을 일찌감치 열었다.

이같은 프리미엄 아우터 전쟁은 확실한 매출 효과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프리미엄 패딩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8.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아웃도어 매출 신장률은 22.3%에 그쳤다.

올해도 8월에 이미 몽클레르 제네브리에(257만원), 자코브(227만원), 플래므(207만원) 등 인기상품 일부 사이즈가 품절되는 등 지난해 인기가 재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새 브랜드' 모시기 경쟁이 치열한 것은, 지난해 병행수입 등을 통해 캐나다구스·몽클레르 물량이 대량 방출되면서 '레어템'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흥미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캐나다구스 디자인을 카피한 '코리아구스'가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

이다람 기자 zing@

토요타자동차가 밝히는 '내수 전략'

"독일 디젤자동차 장점 벤치마킹 렉서스 하이브리드 더 강해질 것"

"독일 디젤차를 따라가기보다는 하이브리드가 가진 강점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렉서스맨들의 생각은 확고하다. 당장 디젤차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하이브리드의 특징을 포기하기보다는 독일 디젤차의 강점을 벤치마킹해 하이브리드를 보완하겠다는 것.

지난 17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와 토요타시에서 만난 렉서스 관계자들의 고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시장에 대한 독일 디젤차의 거센 공세다. 일본 전체 자동차 판매시장은 320만대가량. 이 가운데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은 약 22만대(6.8%)로 렉서스를 비롯한 메르세데스 벤츠, BMW가 '톱3'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토리이 토리노스케 렉서스 일본 국내영업부 그룹매니저는 "작년에 벤츠가 A클래스를 도입하면서 일본에서 렉서스 판매량을 앞서기도 했다"며 최근 시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일본과 한국의 전체 판매량 가운데 각각 75%, 78%를 하이브리드 차종에 의지하는 렉서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렉서스는 독일 디젤차에 맞서 디젤 하이브리드가 아닌 현재의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디젤엔진 자체가 무겁고 비싸서 소비자 구매 측면에서 시기상조라는 점을 고려했다. 렉서스는 가솔린 하이브리드의 부족한 부문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오츠카 켄지 렉서스 제품기술개발부 프로젝트 매니저는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주행에서는 디젤이 좋은 연비를 기록하지만, 신호가 많은 도심주행에서는 하이브리드가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며 "하이브리드의 약점인 고속주행에서의 연비를 어떻게 개선할지 개발팀에서 다각도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렉서스는 독일차의 바디 강성을 벤치마킹해 레이저 용접과 장문 접착제도 바꿔가며 차체의 강성을 높이는 한편 승차감과 정숙성, 주행성능 등에도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렉서스 엔지니어 출신의 야마모토 타카시 토요타자동차 상무는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좋으면서 배출가스가 적고, 배기량을 뛰어넘는 퍼포먼스와 디젤에 없는 정숙성도 갖춘 것이 기본 강점"이라며 "독일차의 디젤엔진에 비해서 렉서스 하이브리드가 가진 독특한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시·토요타시(일본)=권태성 기자 tskwon@



야마모토 타카시 토요타자동차 상무.

갤러리아백화점,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갤러리아백화점이 국내 상업시설 최초로 에너지 저장·관리 시스템이 융합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운영한다.

갤러리아명품관은 웨스트 옥상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18일 첫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발전설비는 40kW 용량으로,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발전시간을 통해 연간 4만3200kW를 생산할 예정이다.

갤러리아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활용해 태양광 모듈로 발전된 전력과 심야전력을 저장, 피크 시간대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기료를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갤러리아명품관 차세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에너지발전·저장 시스템과 함께 에너지 관리시스템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갤러리아는 에너지 발전·축전·전력사용 등 운영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다람 기자 zing@

Mobile DAUM 비타민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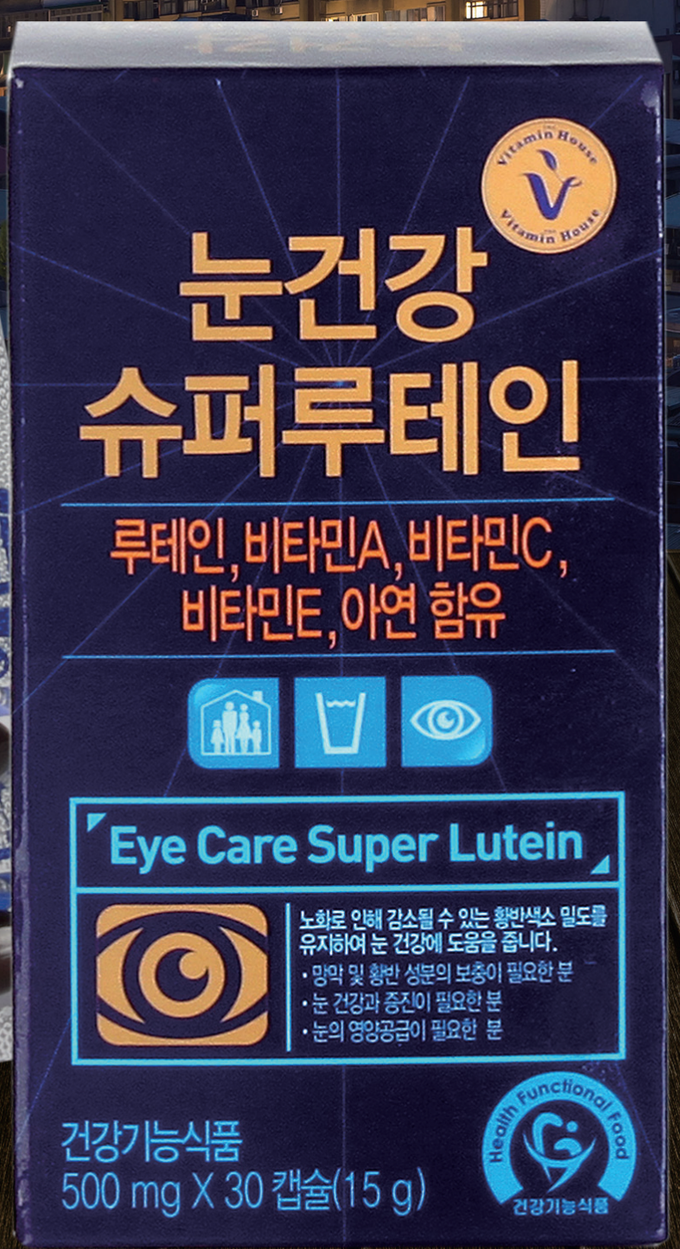
눈건강 슈퍼루테인

Eye Care Super Lutein

침침하고 흐릿한 눈을 시~원하게!
맑고 선명한 눈을 위한 현대인의 선택!

1일 1캡슐로 루테인 12mg, 비타민A 700ugRE 섭취





루테인은 눈속의 망막과 황반의 구성성분으로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가까운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코너 에서 구입하세요!

갤노트4 예약판매…어느 이통사로 갈까

다양한 혜택 내걸고 프로모션

SKT, 삼성 S뷰 커버
KT, 셀카봉·배터리팩
LG U+, 삼성 기어 핏 증정
출고가 90만~100만원 예상

이동통신3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예약판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통3사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놓고 가입자 유치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당초 내달 초 갤럭시노트4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애플의 신형 아이폰6가 출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이를 앞당겨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당초 갤럭시노트4의 정식 출시일은 오는 26일이었지만 계획보다 1~2주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이통3사를 통해 예약 구매를 한 소비자들은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을 받을 수 있다.

18일부터 영업재개에 나서는 SK텔레콤은 예약판매 하루전부터 자사 공식 온라인 쇼핑몰 'T월드 다이렉트'를 통해 갤럭시노트4 프로모션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가입에 돌입한다. 모든 예약가입자는 개통 후 프로모션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만 하면 삼성 정품 S뷰 커버와 휴대용 배터리팩을 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4 가입은 현장 대리점과 온라인 쇼핑몰인 T월드 다이렉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 가입은 300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온라인 예약 가입 고객 중 750명에게 몽블랑 전용 케이스 또는 펜을 추가 제공한다.

KT는 갤럭시노트4 예약가입자에게 13만원 상당의 '셀카봉' 과 배터리팩을 무료로 증정한다. 해당 고객이 향후 출시 될 삼성전자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어S'를 10월 말까지 추가 개통 할 경우 선착순 4000명에 한해 삼성전자 블루투스 이어폰 '기어 서클' 을 증정한다.

KT는 갤럭시노트4 공식 출시 전인 19일부터 전국 39개의 S.Zone매장에서 갤럭시노트4와 기어S를 사전 전시해 고객들에게 해당 기기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전국 대리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가입자를 모집한다. 예약 가입자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가입 고객 전원에게 심박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삼성 기어 핏'과 대용량 배터리팩 등을 제공키로 했다.

이통3사 갤럭시노트4 예판 혜택 ※출처: 각사

SK텔레콤	
공통	정품 S뷰 커버와 휴대용 배터리 팩 제공
추첨	750명에 한해 몽블랑 전용 케이스 또는 펜
KT	
공통	셀카봉, 배터리팩
추첨	기어S 추가 구입할 경우 4000명 삼성전자 블루투스 이어폰
LG유플러스	
공통	삼성기어핏, 대용량 배터리팩

갤럭시노트4의 출고 가격은 90만~1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독일에서는 699유로(약 93만원), 영국에선 575파운드(약 96만원)에 예약 판매를 시작한 상태다. 아이폰6(137만원)·아이폰6플러스(179만원)의 예약 판매가격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김범근 기자 nova@

SKC, 바이오랜드 인수 추진

코스닥 화장품 원료업체
안정적 매출 사업 다각화

SKC가 코스닥 화장품 원료업체 바이오랜드 인수를 추진한다.

바이오랜드는 이달 17일 "최대주주 외 4명의 주주가 SK그룹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바이오랜드가 SK그룹에 인수된다는 설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상 SKC가 바이오랜드 인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실제 SKC 역시 신생 사모펀드(PE)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바이오랜드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요지분을 인수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KC는 바이오랜드 2대 주주로 2007년 바이오랜드 지분 14.67%를 인수한 이후 일부를 매각, 현재 지분 9.75%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로 천연식물을 재료로 화장품과 의약품, 건강식품 원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1995년 설립된 후 6년만인 200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지난해 기준 매출 710억원, 영업이익 131억원을 기록했다.

SKC가 바이오랜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업다각화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C는 PET필름, PO 유도체 등 필름·화학부문 사업이 전체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은 시장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며 "이에 SKC는 이를 만회할 안정적인 매출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올 초 바이오랜드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IMM PE와 경영권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7월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SKC로의 피인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재공시할 예정이다.

박성제 기자 psj@

SKT 영업정지 가입자 '이상무'

시장 냉각기…7일간 4만여명 빠져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 가입자 이탈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이 '쿨다운(냉각기)' 되면서 경쟁사 간 보조금 경쟁이 재연되지 않은 탓이다.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영업정지 기간 4만8398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다. 영업정지가 추석 연휴와 맞물린 탓에 6~10일 번호이동 건수도 포함됐다.

이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약 4000명의 가입자가 경쟁사로 빠져 나간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 각각 2만48106건, 2만3588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초 영업정지가 추석 연휴 직후라 가입자 이탈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가입자가 줄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다"며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대기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연휴와 영업정지 기간 누적 번호이동 건수는 13만536건으로 하루 평균 1만878건이었다. 이는 정부의 시장과열 기준인 일평균 2만4000건을 크게 밑돌았다.

김범근 기자 nova@



SKT 벤처창업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리스타트' 2기 발표회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왼쪽)과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SKT 타워에서 열린 '브라보! 리스타트' 2기 발표회에 참석해 참석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벤처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브라보! 리스타트' 2기 참가팀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갖고 지속적인 사업화 지원을 발표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건강관리 '헬스앱' 탑재… 애플 iOS8 다운받아 볼까

오늘부터 배포…의료정보 지원
가족간 사진·위치·음악 공유도

애플의 새로운 OS(운영체제) 'iOS8'의 무료 다운로드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애플이 17일(현지시간) 공식 배포를 시작한 iOS8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운동 및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새로운 '헬스앱' 탑재다.

헬스앱은 건강진단과 피트니스뿐 아니라 수면시간 측정, 사용자 신체정보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놓았다. 또한 헬스키트앱을 이용해 애플워치 등 다양한 기기의 건강 및 운동 데이터를 공유하고 관련 데이터를 대시보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잠금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응급카드도 지원돼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등 의학적 질환 등에 대한 의료정보도 제공한다.

사진 기능도 크게 개선됐다. 아이클라우드와 통합돼 모든 사진을 'iOS'와 'OS X' 디바이스에서 볼 수 있고 쓸어넘겨서 밝기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편집' 기능을 통해 디바이스에서 사진을 바로 편집할 수 있다. 또 '미세 조정 제어기' 기능으로 사진의 노출, 밝기, 대비, 하이라이트, 그림자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들끼리 사진, 위치, 영화 및 음악, TV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 공유 기능도 두드러진다. 특히 어린이가 콘텐츠를 구입할 경우 부모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gutjy@

"모바일 첫 화면 잡아라" 플랫폼 전쟁

구글 '나우런처'로 검색장악 노려
페이스북도 '홈' 출시 접근성 높여
국내선 '카카오홈' '도돌런처' 인기

모바일 첫 화면을 잡기 위한 IT 기업들의 뜨거운 전쟁이 시작됐다. 모바일 플랫폼 사용 패턴상 첫 화면이 이용자의 앱 사용환경을 결정한다는 이유다.

기업들은 저가 스마트폰을 공급해 자사 운영체제(OS) 확산에 나서는가 하면 자사 앱 우선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런처'까지 내놓고 있다. 런처는 스마트폰의 OS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배경화면과 아이콘 등 모든 사용자환경(UI)을 바꿀 수 있는 첫 화면 설정 앱이다.

구글은 우선 10만원대의 저가 안드로이드폰을 최근 인도 등 신흥국가에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안드로이드 확산에 나섰다. 이미 국내 사용자의 90%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애플 IOS가 구글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다.

특히 구글은 구글검색엔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글나우런처'를 제작해 배포했다. 나우런처는 구글의 음성 서비스 등을 특화해 검색 편의성을 높인 런처다.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홈'을 출시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였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은 '고런처'는 다운로드 횟수가 무려 2억만건을 넘었다.

국내 시장은 카카오의 '카카오홈', 네이버 '도돌런처', 다음 '버즈런처'가 앱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버즈런처는 최근 다운로드 1000만을 돌파했다. 현재 14개국어로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버즈런처는 사용자가 만든 홈스크린을 공유하는 SNS 런처다.

카카오홈은 카카오톡을 주로 사용하는 10~20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스토리, 그룹 친구들의 생일 소식을 모아보는 기능과 즉시 답장 기능이 특징이다. 바탕화면 등이 변경되는 여러 테마도 제공한다. 도돌런처 역시 최근 900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도돌런처의 이용자수는 180만명으로 가장 높았고, 카카오홈(131만명), 버즈런처(129만명) 등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작부터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이와 연계한 광고와 플랫폼 장악을 통한 검색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헌 기자 119@



노후된 터미널·도서관에 극장·어린이집 들어선다

'2차 규제개혁 회의' 조치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상업시설 설치 가능

도시의 노후된 터미널과 도서관 등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과 같은 다양한 문화·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됐던 내용이 실제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대학교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버스터미널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 규제가 없었 지만 현재는 해당 시설이 있는 용도지역에 따라 입지 제한이 있다.

지금도 일부 터미널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지만 이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필요로 한다. 상당수 지방 터미널 등은 도시개발 등으로 기대수익이 높아졌음에도 도시관계계획상의 용도규제 때문에 투자를 유치해 개발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별도의 행정절차가 없어도 터미널과 도서관 등 공공 인프라시설에 어린이집, 공연장,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다만 영화관(500㎡ 이상), 전시장, 업무시설·제조시설·일반 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터미널·유원지·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면적 제한을 두는 등 별도의 부대·편익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계획적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편의를 높이면서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최초·최대·최고… 분양 '타이틀 大戰'

가을 분양성수기를 맞이해 '최초', '최대', '최고' 타이틀을 내세운 단지들이 속속 일반에 선보이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삼성물산의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서초우성3차 재건축)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기능을 탑재한 첨단 신상품을 대거 적용, 좀더 진화된 '커넥티드 하우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아파트 거실에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인 '스마트 네트워크 하스'가 설치된다. 국내 최초로 블루투스 기술이 도입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12인치의 대화면에서 HD 화질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방에는 미러링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미러링 주방 TV'도 국내 최초로 설치, 입주자는 이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 영상을 주방 TV로 손쉽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한 음원이나 동영상도 주방 TV로 즐길 수 있게 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서초구 삼호 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강남 최초로 26층에 스카이브리지를 설치하고 주민공동시설 중 북카페를 조성하는 등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인다.

최초 시스템
'래미안 서초'·'서초 푸르지오'
홈네트워크·스카이브리지

최대 규모
'세종 메이저시티' 3171가구

최고 높이
'아크로리버파크' 38층 우뚝



삼성물산의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에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기능을 탑재한 첨단 신상품이 대거 적용됐다. 사진은 스마트 네트워크 하스. 사진제공 삼성물산

세종시에는 2-2생활권 P3구역에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조성된다. 총 3171가구로 구성되는 '세종시 2-2생활권 P3 메이저시티'로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4개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하며 10월 중 분양한다. 2-2생활권 내 가장 큰 규모인 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부산에서는 올해 분양되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10월 분양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남구 대연2구역을 재개발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로 지하 6층~지상 35층 총 30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59~121㎡, 총 3149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초대형 단지로 구성되며, 이 중 일반에는 1866가구가 분양된다.

대림산업이 이달 분양하는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는 강남권 한강변에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최고 38층으로 지어진다. 이 일대는 원칙적으로 35층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서울 재건축 아파트로는 처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예외적으로 최고 38층 건축이 허용됐다.

평균 19대 1의 청약경쟁률로 올해 수도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위례신도시에서 총 3개 단지가 분양된다. GS건설이 이달 위례신도시 A2-3블록에서 '위례 자이'를 분양한다. 특히 테라스하우스 26가구와 펜트하우스 7가구가 포함돼 있어 '래미안 위례신도시' 테라스하우스 청약경쟁률(최고 379대 1)의 기록을 갈아치울지 여부에 기대가 모아진다. 강영관 기자 kwan@

'법정관리' 남광토건, 매각 재추진

지난 6월 유찰… 업계 불황으로 난항 전망도

남광토건이 인수합병(M&A)을 재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남광토건의 이번 M&A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후 실시되는 2번째 시도다. 지난 6월 매각이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남광토건에 따르면 이 업체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18일 매각공고 후 이달 30일까지 인수의향서를, 10월 27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1947년 설립된 남광토건은 1986년 쌍용그룹으로 편입, 2008년 대한전선 계열에 합류했으나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2년 8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경영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꾸준히 수주 경쟁력을 유지한 결과 2013년말 3건(1374억원)의 공공건축을 포함해 현재까지 3000억원의 공공공사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베트남 철도 등 3개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아부다비 등에 해외지사를 유지하고 있어 경영정상화 후 매출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상장을 유지하고 있어 인수 후 자금 조달 등에서 강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그 동안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안정적 매출이 확보된 관급공사 위주로 내실을 다져 향후 2년의 매출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의 잇단 매각 실패와 장기화되고 있는 업계 불황으로 인해 남광토건의 재매각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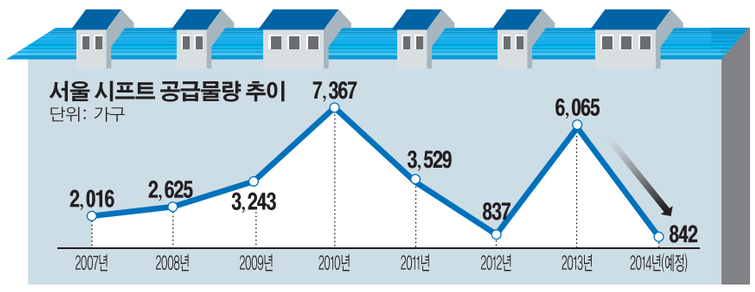
올해 서울 장기전세주택 '품귀 현상'

842가구 공급 역대최저 수준
택지지구 부족…내년 더 줄듯
신규보단 재계약 물량 노려야

2007년 첫 도입된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 공급량이 올해 들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도입했던 시프트는 집에 대한 생각을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탄생한 공공형 전세주택이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27차에 걸쳐 2만6000여 가구를 공급했으며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공급해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27차인 올해 6월에도 410가구 공급에 총 5803명이 접수해, 평균 14.2: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의 공공택지 개발여력이 크게 줄면서 신규 공급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강서구 마곡지구 신규물량의 영향으로 6065가구가 공급됐던 반면 올해는 공공택지 물량이 급감하면서 842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던 마곡지구 공급까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추가로 시프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추가적으로 개발될 택지지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2015~2016년에는 올해보다 공급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시프트의 신규 공급을 노리고 대기 중인 무주택 수요자라면 청약 기대감을 과거보다 크게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시프트의 희소성은 공급부족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공급은 물론 과거에 공급된 기존 공공택지의 재계약 물량의 틈새시장도 공략에 나설 필요가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시프트도 일반 전세처럼 2년 단위로 재계약하므로 공가에 의한 재계약 물량도 다수 나올 수 있다"면서 "또한 은평지구나 강일지구처럼 과거부터 대규모 공급이 누적된 공공택지에서도 꾸준하게 공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프트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9·1부동산대책 기대감 고조
건설체감경기 2개월째 상승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주택경기가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월 전국의 주택경기실사지수(HBSI)가 134.7로, 지난달보다 9.9포인트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HBSI는 기준값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주택가격 안정세와 규제 완화 바람으로 상승세를 탄 HBSI는 올해 3월 155.4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2·26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발표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4월 135.2로 떨어진 HBSI는 113.0(5월)→101.0(6월)→90.6(7월)으로 하락을 이어가다 지난달 상승 전환했고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서울·수도권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은 전월 대비 13.3포인트 오른 143.3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3.6포인트 상승한 141.3을 각각 기록했다. 경기지역이 한 달 사이 21.2포인트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지방은 113.4로 전달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강영관 기자 k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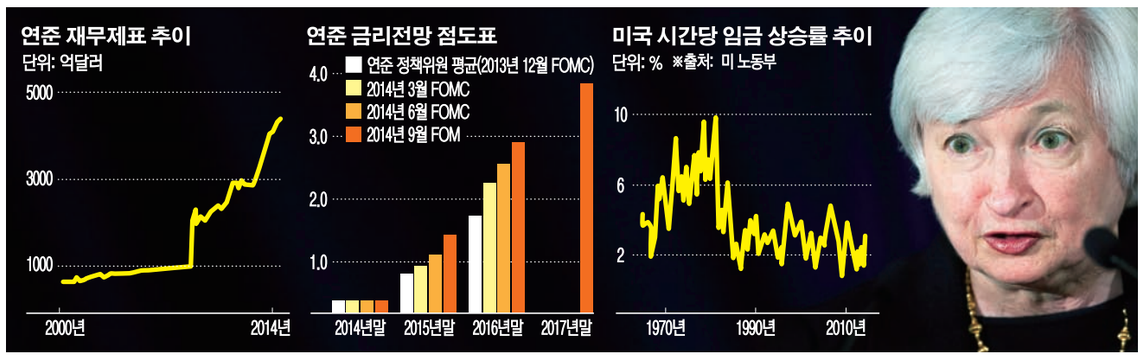
"고용시장 회복 느리다" 유연해진 옐런

〈美 연방준비제도 의장〉

FOMC, 부양기조 지속

임금인상·생산성 등 실망
금융위기 여파 이어질 것

금리인상 시기보다 '속도'
내년 1.375%까지 오를 듯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FOMC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금리인상 불안을 잠재웠다는 평가를 내놨다. 존 실비아 웰스파고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조기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를 시장에 다시 전달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기대 이하여서 연준이 연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옐런 의장은 이날 FOMC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 속도와 관련해 시장과 연준의 입장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라면서 연준의 점도표와 관련해서는 경제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의 점도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점도표란 연준 정책위원들의 금리전망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옐런 의장은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지속한다는 선제적 안내에 대해서는 "연준은 선제적 안내를 항상 검토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이라는 단어는 약속이 아니다"라면서 "연준은 선제적 안내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시장이 연준의 점도표에 비해 금리인상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고용시장은 개선되고 있지만 임금 인상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옐런 의장은 평가했다.

옐런 의장은 "완전 고용이 이뤄지더라도 회복이 완료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금융위기 여파가 초저금리의 지속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을 통해 실업률은 내년에 5.4~5.6%를 기록하고 2016년에는 5.1~5.4%로 낮아질 것으로 연준 정책위원들은 예상했다.

이날 FOMC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준이 내년 중순 이후 금리를 올리겠지만, 금리인상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점도표를 통해 연준 정책위원들이 제시한 내년 금리 전망이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나타난 영향이다.

피터 북바 린제이그룹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채권과 금, 달러는 (FOMC 결과에 대해) 매파적으로 반응했다"라면서 "이들 시장 참가자들은 모두 증시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시장의 관심이 이제 금리인상 시기보다는 금리인상 속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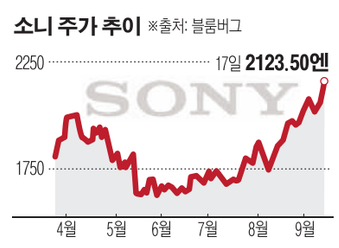
로저 베이스톤 프랭클린템플턴 채권부문 부사장은 "금리가 제로에서 내년 1.375%까지 오르는 것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선다는 것"이라면서 "금리에 대한 연준의 전망이 높아지면 달러에는 강세 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차기 FOMC를 개최한다. 10월 FOMC에서는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은 예정돼 있지 않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日 소니 '스마트폰' 쇼크 상장후 첫 무배당 '굴욕'

순손실 2조원… 작년 2배
2분기 글로벌 점유율 3.1%
中업체와 경쟁에서 밀린 탓
"모바일부문 대거 상각처리"



일본 대표 전자업체 소니가 끝없이 몰락하고 있다. 소니가 17일(현지시간) 내년 3월 마감하는 2014 회계연도 실적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회사는 순손실 전망치를 종전의 500억 엔에서 2300억 엔(약 2조219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의 1238억 엔에서 적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영업이익은 종전의 1400억 엔 흑자에서 400억 엔 적자로 전망이 바뀌었다. 지난해는 영업이익이 264억 엔이었다.

매출 전망은 종전의 7조8000억 엔을 유지했다.

스마트폰 사업 부진에 따른 감가상각이 전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소니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 격화로 스마트폰 판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분야 영업권 1800억 엔을 상각처리했다.

맥쿼리그룹의 데미안 통 애널리스트는 "예상보다 상각 규모가 컸다"며 "우리는 600억 엔 정도를 상각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시노 마사히코 어드밴스드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소니는 진작에 상각을 시행했어야 한다"며 "많은 투자자들이 연초부터 모바일 부문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도 회사가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을 의아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연례 배당금 지급 중단 결정이다. 소니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난 1958년 도쿄증시 상장 이후 56년 만에 처음이다. 회사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주당 25엔의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 히라이 가즈오 소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의 첫번째 임무와 책임은 배당금 지급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적이 부진한 모바일 기기 사업을 15% 축소하고 내년 초까지 10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라이 CEO는 TV와 디지털카메라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콘텐츠, 비디오게임 콘솔, 모바일 기기를 강조해 회생을 꾀하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1월에 선보인 차세대 게임 콘솔 '플레이스테이션4(PS4)'가 경쟁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의 X박스원을 크게 따돌리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그룹 전체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소니는 지난 2분기에 스마트폰을 약 940만대 출하해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3.1%에 그쳤다. 소니 순위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물론 중국 업체들에도 뒤진 9위에 불과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우주여행' 꿈꾸는 베조스

〈아마존 CEO〉

블루오리진, ULA와 로켓엔진 개발 파트너십
"국산화 5년 내로 완료…2019년 첫 발사 목표"

미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50·사진)가 우주항공 사업에 진출했다.

베조스가 설립한 우주항공 스타트업 '블루오리진'이 '유나이티드런치얼라이언스(ULA)'와 로켓엔진 개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베조스 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블루오리진은 이미 수년 전부터 ULA와 함께 우주선과 최첨단 추진 로켓 개발에 힘써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ULA는 방위산업체로 유명한 록히드마틴과 보잉의 합작회사로 사실상 미국 군사 정찰위성 발사 부문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다. 블루오리진과 ULA는 '아틀리스V'로켓에 장착되는 엔진의 국산화를 향후 5년 내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블루오리진과 ULA는 향후 2년 내로 로켓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해 2019년에는 첫 발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로켓엔진 개발에는 최소 수년이 걸리고 개발비용은 20억 달러가 넘는다.

이날 베조스는 "블루오리진은 인간의 우주 접근에 대한 비용을 낮추고 신뢰도는 높이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가 개발 중인 엔진인 BE-4는 큰 진전 중 하나"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항공산업은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이후 우주비행사를 우주정거장까지 보내는 일을 좌석당 7000만 달러(약 720억원)씩 내면서 러시아에 의존해왔으며 로켓엔진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양국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미국은 우주항공 산업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고 WSJ는 전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17일(현지시간) 제프 베조스(오른쪽) 아마존 CEO 겸 블루오리진 창업자가 토리 브루노 유나이티드런치얼라이언스(ULA) CEO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블룸버그

다이아몬드 판매 작년 사상최고치

78조원 규모…中수요 영향

중국 열기에 글로벌 다이아몬드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업체 드비어스는 1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과 미국의 왕성한 수요에 힘입어 글로벌 다이아몬드 보석 판매가 790억 달러(약 78조원)로 전년보다 3%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다이아몬드 연마석 판매도 전년 대비 3% 늘어난 2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수요는 14%, 미국은 7% 각각 증가했다.

필립 멜리어 드비어스 최고경영자(CEO)는 "성장을 이끈 가장 큰 엔진은 중국"이라며 "결혼하는 중국 여성들이 다이아몬드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글로벌 다이아몬드시장에서 비중이 3%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5%로 높아졌다. 지난 5년간 중국의 다이아몬드 수요는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인들은 대부분 자국 내에서 다이아몬드를 사지만 홍콩과 마카오, 유럽 등에서도 왕성한 구매욕을 발휘하고 있다. 멜리어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쇼핑객은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다이아몬드 판매의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사흘째 꺼지지 않는 산불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시포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서 소방관이 소방호스로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산불로 7300만㎡의 산림이 소실됐다. 빠른 산불 확산속도에 1500가구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현재 진화율은 약 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스포드/AP연합뉴스

中, 돈풀면 뭐하나…빌리지 않는데

인민은행, 84조원 투입… "대출수요 부족 효과 미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인민은행은 최근 경기둔화에 대처하고자 만기 3개월의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를 통해 5대 시중은행에 각각 1000억 위안씩, 총 5000억 위안(약 84조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했다. 이들 은행이 새로 확보한 유동성을 통해 대출을 많이 하도록 장려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정작 대출수요는 낮아 인민은행의 의도가 제대로 먹힐 지 의문이라고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대형은행들은 부실대출을 우려해 중소기업들에 돈을 잘 안 빌려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동성 부족보다 실질적인 대출수요의 부족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데렉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충분한 돈이 있다. 사람들이 단지 이를 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라며 "돈을 퍼부어도 이런 경향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리포트

시진핑, 인도 방문 경제협력 논의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생일인 17일(현지시간)에 맞춰 그의 고향 구자라트주에 도착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인도를 방문한 것은 1996년 장쩌민 주석, 2006년 후진타오 주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모디 총리는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며 시 주석을 환영했고 이후 마하트마 간디가 세운 공동체 '사바르마티 아슈람'을 직접 안내하고 사바르마티 강변에서 만찬을 했다. 전날 모디 총리는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양국의 유대관계가 인치(INCH·India-China, 인도-중국)에서 마일(MILES·Millennium of Exceptional Synergy, 유례없는 시너지의 1000년)로 터지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날 두 정상은 광둥성과 구자르트주의 협력 증진 등에 관한 협약 3개에 서명했고 본격적인 양국 관계 논의는 다음날로 미뤘다. 양국 정상은 18일 뉴델리에서 경제협력방안과 오랜 분쟁 사안인 국경문제와 티베트 망명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中해커, 美군납업체 정보 유출"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의 항공과 해운, 운송, IT 등 다양한 분야의 군납업체에 침투해 각종 정보를 빼돌렸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이날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20차례의 해킹이 있었다. 해커들은 해킹을 통해 미군 물류시스템을 세세하게 들여다봤으며 이는 차후 해당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기초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중의 관심은 JP모건체이스나 홈디포 같은 기업들에 대한 해킹에 쏠려있지만 미국 국방부는 계속 침입을 시도해 군사기밀을 빼돌리고 잠재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는 해커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위원회의 조사에서 12개 군납업체가 해킹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보고서는 개별 기업의 명칭을 밝히지는 않았다.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찬반 팽팽

영국 연방의 운명을 가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 투표가 18일(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시행된다. 공식적인 출구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주요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서 출구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 종료 시점 이후 공개가 가능하다. 투표의 결과는 19일 오전 6시, 한국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에서 투표율 50%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찬성과 반대 의견 중 다수를 차지한 쪽이 승리하게 된다.

개표 결과 독립 찬성이 다수로 집계되면 스코틀랜드는 1707년 잉글랜드와 통합된 이후 307년 만에 분리 독립하게 되며 반대가 다수일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영국 연방 안에 남는다.

영국 여론조사 기관 ICM과 오피니움이 각각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는 독립반대가 52% 찬성은 48%로 반대의견이 높았으며 오후에 발표된 패널베이스 조사결과도 52%대 48%로 반대의견이 앞섰다. 반대여론이 전반적으로 우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격차가 근소해 부동표 공략을 위한 유세 열기가 가열됐다.

최신원 회장의 아주 특별한 기부

〈SKC〉

둘째딸 축의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액 기부
기부 재산만 25억원… 아이스버킷챌린지도 동참
활발한 기부 활동 펼치며 재계 사회공헌 확산 앞장


최신원 SKC 회장. 뉴시스

최신원 SKC 회장이 둘째 딸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18일 SKC는 최신원 회장이 둘째딸 영진씨의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전액을 경기사회복지모금회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C 관계자는 "경기사회복지모금회에는 이미 기부를 했고 기아대책에는 오늘 기부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영진씨는 장기제 전 동부하이텍 부회장의 아들인 용진씨와 혼사를 치렀다. 영진씨의 결혼은 2006년 큰딸 유진씨와 2010년 아들 최성환 SKC 상무에 이은 마지막 혼사다. 최 회장은 이번 혼사에서 양측 하객을 100명으로 최소화하는 '작은 결혼식'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화환도 받지 않았고 축의금은 받되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재계에서도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설 정도로 평소에도 활발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기도 한 최신원 회장은 지난 7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연임이 결정돼 2017년까지 3년간 모금회를 더 이끌게 됐다. 최 회장은 2011년 7월 부임한 이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이 그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개인 재산만 25억원에 달한다.

작년부터는 탈북청소년복지성금으로 매달 500만원씩 기부하고 있다. 또 9월 초에는 수원 하광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경동원에서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캠페인인 '아이스버킷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2003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 중인 최 회장은 2008년 대기업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2009년에는 미국경제 주간지 포브스 아시아판이 선정한 기부영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이학수 前고문 '1조대 부호' 예약

〈삼성물산〉

삼성SDS 올 11월 증시 상장 예정
보유 주식 평가액만 8900억 달해



삼성SDS의 올 11월 증시 상장으로 이학수〈사진〉 전 삼성물산 고문이 1조원대 자산가가 될 전망이다.

18일 재벌닷컴,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전 고문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SDS 주식 300여만주를 장외시장 거래 가격 기준(9월 16일 29만7000원)으로 계산하면 평가액이 89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신과 부인, 두 아들 등 4명 공동명의의 부동산 가치 2000억원 짜리 서울 테헤란로 L&B 타워를 더할 경우 이 전 고문의 자산은 1조 1000억원에 육박한다.

이 전 고문은 삼성특검 여파로 등기임원에서 물러나기 전인 2008년 8월까지 삼성SDS 주식 251만주를 보유했다. 업계는 이 전 고문의 주식이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 우호지분으로 분류됐던 만큼 이 주식을 지금까지 대부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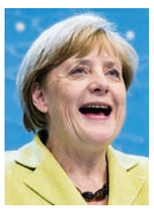
이 전 고문은 삼성SDS와 삼성SNS의 합병으로 통합 삼성SDS의 주식 46만1807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삼성SDS와 삼성SNS 합병비율은 1대 0.4618115다. 이 전 고문은 삼성SNS 주식 99만9990주를 보유한 바 있다.

이 전 고문이 1조원 가량의 자산을 현실화할 경우 국내 부자 순위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 전 고문은 지난 5월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우리나라 자산 1조원대 부호들이 몰려있는 30위권에 진입하게 된다. 정몽진 KKC 회장(9995억원·31위), 구본준 LG전자 부회장(8656억원·36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28억원·43위) 등 재벌가 오너보다 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SDS 상장 수혜를 입은 '삼성맨'은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SDS 지분 1.83%(약 13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16일 현재 장외 거래가격에 계산하면 지분 가치는 3890억원에 달한다. 장효진 기자 js62@

메르켈 독일 총리 제12회 서울평화상

과거사 반성 평화의 중요성 알려



자국이 과거 전범 국가임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 어린 태도를 보여온 앙겔라 메르켈〈사진〉 독일 총리가 서울평화상을 받게 된다.

18일 서울평화상심사위원회는 최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메르켈 총리를 제12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승 심사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로부터 추천된 많은 개인과 단체 후보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제12회 수상자로 과거사 사죄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각성시키면서 이를 통해 전쟁의 폐해를 알리고 국제 평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됐다며 재단 측에 사의를 전했고 영광으로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서울에서 직접 수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크리스티아네 비르츠 독일정부 부대변인이 밝혔다.

독일 최초의 여성총리인 메르켈 총리는 2007년 9월 유엔총회에서 독일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듭 사과했고 이듬해 이스라엘 의회 연설을 통해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사죄한 바 있다.

이어 독일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8월에는 2차대전 당시의 나치 수용소인 다하우 추모관을 방문한 자리와 올 7월 중국 칭화대 강연에서도 과거사를 반성하는 발언을 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소설가 복거일 "이재용 부회장, 꿈을 보여라"

삼성 사장단 회의 강연서 "관료주의 경계·과감한 조직개편" 주문


연합뉴스

소설가 복거일〈사진〉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꿈을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17일 삼성 사장단 회의 강연자로 초청된 복씨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제 꿈을 보여줄 때"라면서 "(꿈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꿈을 펼치는 권한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꿈을 좇다 보면 회사와 국민, 고객들이 그 권한을 이 부회장에게 줄 것"이라며 "아직 이 부회장이 꿈을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곧 꿈을 보여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씨는 이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회장을 예로 들며 "이 회장은 신경영 선포 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멋진 꿈을 제시했다"며 "이 부회장은 개인의 지향점이 담긴 꿈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씨는 "꿈을 제시했을 때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이를 좋게 볼 것"이라면서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었다. 잡스가 개발한 PDA(개인휴대단말기)가 흥행에 실패했지만 이 같은 실수가 아이폰과 같은 제품의 밑거름이 됐다는 설명이다.

삼성 사장단에게는 관료주의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복씨는 "조직이 커지면 관료주의에 젖게 되는 만큼 삼성도 관료주의를 경계하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외이사 등을 통한 외부 영향을 확대 및 과감한 조직 개편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서진원 신한은행장(앞줄 성화주자 중 오른쪽)과 유주선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을 위해 세종대로를 달렸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인천AG 성화봉송 나선 서진원 신한은행장

유주선 노조위원장 함께 달려

서진원 신한은행 은행장은 19일 개막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 주자로 나섰다.

서 행장은 17일 유주선 노조위원장과 함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세종대로에서 성화 봉송에 나섰다.

이번 성화 봉송은 서 행장이 노사가 함께 국가적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를 유 위원장이 수락함으로써 성사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 행장은 노사는 조직의 미래를 향해 함께 뛰는 상생의 동반자임을 항상 강조해 왔다"며 "이번 동반 성화봉송 또한 대회의 성공 개최 기원과 함께 상생의 노사관계를 굳건히 다져가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최고등급 후원사인 프레스티지 파트너로 그 동안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를 위해 △2억원 상당의 개막식 입장권 구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념 정기예금 출시 △국위 선양을 위해 땀 흘린 메달리스트를 지원하는 Tops Club Award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선수단 스포츠용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김민지 기자 kimmj@

'인간의 욕망과 페티시즘' 송채원 개인전

23일부터 서울 갤러리신교



작가 송채원의 전시회 'Counterfeit chicks'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소재 갤러리신교에서 열린다.

'인간의 시작은 성'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에서 작가 송채원이 선택한 오브제는 마텔 사의 인형 '바비'다. 바비는 자신의 성적 페티시를 발견하는 인간의 경험을 보여준다고 송 작가는 설명한다.

또한 송 작가는 바비들이 자신 스스로의 매력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표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바비인형들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매력과 욕망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송 작가는 강조했다.

주 최 측 관계자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매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무엇에 열광하는지 경험해 보았으면 한다"며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매력을 발견해 스스로에게 생기와 자신감을 부여하는 과정은 현대인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첫 여군포병' 홍지혜 소위



"화력전의 중추인 포병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6사단 76포병대대에서 사격지휘 장교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홍지혜 소위(25·육사 70기·사진)의 각오다.

올해부터 육군의 포병, 기갑, 방공병과가 여군에게 확대 개방되면서 지난 6월 말 포병 여군장교 6명과 방공 여군장교 2명이 야전에 배치됐다. 포병병과 첫 여군장교로 책임감을 느낀다는 홍 소위는 "앞으로 포병의 중요 직책을 수행하면서 포병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인사

◆안전행정부 △정책평가담당관 하병필 △복무담당관 김우종 △협업행정과장 서주현 △공공정보정책과장 박덕수 △전자정부정책과장 황규철 △전자정부지원과장 김영수 △정보자원정책과장 김동석 △행정정보공유과장 서정욱 △인사정책과장 하태욱 △심사임용과장 이정렬 △고위공무원정책과장 이진 △교육훈련과장 박용수 △성과급여기획과장 윤병일 △선거의회과장 이현웅 △교부세과장 김장호 △공기업과장 김주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 박행열 △세종청사관리소 방호과장 조성배 △이북5도 평안북도 사무국장 김상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장 정의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 인사 △부사장 박기동(안전관리이사 겸직) △기획관리이사 박장식

◆서울도시철도공사 ◇실장급 전보 △최정균 안전총괄실장 △김성완 기획조정실장 △김대식 경영지원실장 △강봉완 기술연구소장 △정양선 안전총괄실 비상계획처장 △김택균 전략개발처장 △김종국 전략마케팅처장 △박주남 운전계획처장 △민승곤 차량계획처장 △최용운고덕차량사업소장

◆성결대학교 △부총장 겸 경영행정대학원장·문화예술대학원장 김광선 △부총장 겸 기획처장 박창영 △교목실장 전정진 △교무처장 김상근 △학생지원처장 정종기 △사무처장 김상명 △학술정보처장 최영미 △대외협력처장 임병우 △일반대학원장 안정훈 △종합인력개발처장 임경수 △입학관리처장 최덕묵 △신학대학장 오현철 △인문대학장 류해춘 △사회과학대학장 강규철 △사범대학장 박정옥 △공과대학장 윤민영 △예술대학장 채진수 △대학원장 안정훈 △성결신학대학원장 겸 신학전문대학원장 최기수 △교육대학원장 이경화 △교육산업단장 구본영 △미디어센터장 이원현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윤민영

부음

▲서태곤(티아이씨 대표이사)·안종업(삼성증권 부사장)씨 장인상 = 17일 정오, 김해삼성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9일 오전 6시 40분, 055-310-7895

▲권혜정(서울신문 나우뉴스 부장)·혜애(전내중 교사)·인숙(간호사)·태훈(신안건설기계 대표)·도훈(신안건설기계 과장)씨 모친상 = 17일 오후 9시 54분, 대구전문장례식장 301호, 발인 19일 오전, 053-961-4444

▲김관춘(우석대 홍보실장)씨 장인상 = 17일 오후, 전주 송천동 대송장례식장 7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63-274-4300

▲김광식(평창경찰서장)씨 부친상 = 17일 오후 3시, 국립경찰병원 장례식장 6-7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02-431-4400, 033-339-5221

▲서광훈·은실·은화씨 모친상, 장학모·박희봉(국제신문 논설주간)씨 장모상 = 17일,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9일, 010-7158-7742

▲강철구(울릉군 부군수)씨 모친상 = 17일 오전, 경산시 옥산장례예식장 201호, 발인 19일 오전 8시, 053-801-4444, 010-7354-8912

▲김은미(MBN 국제부 기자)씨 시모상 = 서울아산병원 지하 1층 1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02-3010-2231

▲신원진(농협은행 오창벤처플라자출장소장)씨 장인상 = 17일 오전 4시,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하늘원 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8시, 033-763-4444

▲남영주(법제처 사무관)·옥현(부산 백병원 치과의사)·순영(구미 차병원 의사)씨 부친상, 고호진(한국경제신문 편집부 차장)·풍무걸(부산성분도치과의원 의사)·윤우성(영남대병원 교수)씨 장인상 = 17일,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208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053-200-6148

▲양성진(전주 완산경찰서장)씨 부친상 = 17일 오전 3시 10분, 광주 북구 그린장례식장 4층 특실, 발인 19일 오전, 062-250-4455, 063-280-0321

▲유명석(한국체육언론인회 부회장)씨 모친상 = 16일 오후 11시 30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 031-940-9370



시상식에 참석한 백인기 고객만족본부 부행장(앞줄 오른쪽 아홉번째)과 정대현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앞줄 오른쪽 열한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시상식

KB국민은행은 국방부와 17일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군 전 장병(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포함)이 꼭 이루고 싶은 개인 소원을 자유로운 내용으로 사연과 함께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이뤄주는 행사이다.

올해 접수된 소원은 총 5437건으로 이 중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7명, 우수상 35명, 장려상 10명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 한해 해당 소속부대의 소원까지 이뤄주는 특별상도 선정됐다. 관련 소원들은 시상식 이후 순차적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유스(Youth)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제고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 40대의 노후준비

현재 40대는 베이비부머와 젊은이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경계인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경계인(marginal man)이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과도기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중장년층처럼 자산을 제대로 축적한 것도 아닌데 벌써 자녀들은 쑥쑥 크고 있다. 50대가 좋아하는 골프나 친목회보다는 여행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 그렇다고 80%의 신입사원이 회사를 옮기려는 분위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고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어정쩡한 특성이 있는 40대들이 노후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점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장수 고령사회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고령사회는 젊은이가 줄어들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를 말한다. 출산율이 여성 1명당 1.3명 이하의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만혼이나 미혼이 더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생각보다 지출을 늘리지 않아서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 결과 중 하나로 경제활동인구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자영업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밝지 못한 전망이 고령사회가 가진 어두운 면이므로 40대의 자산관리나 노후준비는 이런 추세를 유념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 40대들은 중장년층들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본격적으로 정년퇴직을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은 가족관계가 허술하며, 취미여가가 단조롭기 짝이 없다. 동창회, 동호회와 같은 친목단체를 활용한 여가활동에 치중하고 있으며, 골프나 등산과 같이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삶을 선호하고 있다. 즉 관계 지향적 여가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40대들은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취미 여가도 부부나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이나 문화활동과 같은 감성지향적 여가에 치중하고 있다. 40대들은 자신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생애설계(life planning)를 짜야 한다. 과도한 경쟁과 소비를 지향하는 외형적인 면보다는 적정한 소비를 통해 내적 행복감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준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젊은층 사이 경계인
본격적인 고령사회·연금 부실화
은퇴 후 준비 여건 더 어려워
소비·투자…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세 번째는 각종 연금개정이 부실화되는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까지 전망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애당초 2060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분석)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은 2053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제시했던 고갈시점이던 2060년보다 7년 앞당겨진다는 말이다. 또한 젊은이들보다 3배 이상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건강하지 못한 고령자들 때문에 건강보험 역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40대의 노후준비는 베이비부머와 달리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 좀 더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개인연금을 가능하면 늘리고, 국내외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야 한다.

앞으로 고령사회가 도래하면 사회 곳곳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세계 유례가 없는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오고 있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오래된 인식구조로는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물론 과도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확한 지식과 예측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래서 40대는 이미 은퇴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와 달라야 한다.

한국은퇴연구소장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국남의 직격탄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들었나요, 김창완·아이유 '너의 의미'를?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21세의 아이돌 스타, 아이유의 맑고 깨끗한 음색의 노래가 이어진다. '너의 그 한 마디 말도…'60세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천재 뮤지션, 김창완의 기교 없는 담백함이 배어 있는 목소리가 더해진다.

김창완과 아이유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으로 재탄생한 '너의 의미'는 감동 그 자체다. 아름다움 그 이상이다.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는 소중한 가치다.

1984년 산울림 10집에 수록된 '너의 의미'가 30년 만인 지난 5월 다시 발매된 아이유의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에서 김창완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김창완과 아이유의 '너의 의미'는 이제 TV와 라디오에서, 길거리와 커피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파장을 일으킨다.

10~20대에게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에서 느낄 수 없는 차별화된 노래의 감성과 감동을, 그리고 중장년층에게는 젊은 날의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 김창완과 아이유의 '너의 의미'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더 나아가 세대 간의 벽과 단절을 허물고 이해와 교류, 소통의 접점을 확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라고 할까.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 갈등으로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를 정도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대립과 반목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빈부 양극화의 갈등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역 간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

여기에 세대 갈등이 더해진다. 압축적 고도 성장 사회의 급변, 고령인구의 증가,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전통적 가족 해체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모, 젊은층의 미래 지향적 태도와 장노년층의 과거 지향적 자세의 충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세대 간의 갈등은 증폭 일로에 놓여 있다. 이제는 지역, 빈부, 이념, 노사 갈등 못지않게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의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세대 갈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최근 한 언론사가 조사한 박근혜 정부의 연령대별 지지도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0~60대 이상에서 60%를 넘었지만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0~20대, 30대 젊은층에서는 60%를 넘어섰다. 정치 부분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세대 간의 갈등은 지하철 좌석에서부터 노인 연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를 통해 적나라하게 표출된다. 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의 문화의 간극은 벌어질 대로 벌어져 서로의 문화와 콘텐츠의 향유는 고사하고 이해조차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더 나아가 상대 세대의 문화에 대한 무시와 폄훼까지 횡행하는 상태다.

지역, 이념 그리고 빈부 갈등처럼 세대 갈등 역시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폐단을 야기하고 있다. 소모적인 대립을 확대 재생산해 정치에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성호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서 '20대의 정체성'에서 세대 갈등의 해결책으로 "세대 간에 서로의 창조적 자의식을 북돋우면서 포용력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적확한 지적이다.

39세의 나이차에서 오는 세대 차이와 음악적 취향, 세계관과 지향점,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초월해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의 눈길을 준 관심과 공감으로 만들어낸 것이 김창완과 아이유의 '너의 의미'다. "아이유는 나의 청춘"이라는 김창완과 "김창완 선배님은 나의 미래"라는 아이유가 연출한 '너의 의미'의 감동적 콜라보레이션은 어쩌면 세대 갈등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지역 갈등, 빈부 갈등, 이념 갈등의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당신은 김창완과 아이유의 '너의 의미'를 들어보았는가. 들었다면 '너의 의미'의 또 다른 의미를 음미할 수 있었나.

knbae@

온라인 와글와글 담뱃값 인상 앞두고 금연 열풍, 이번엔 꼭!



○…담뱃값 인상에 벌써 금연 열풍? 내년부터 오르는 담뱃값에 흡연자들이 금연 클리닉과 소모임 등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술도 어떻게 해 봐라. 아니면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는거나 더 강력하게 해주든가", "담뱃값 올라서 끊으려는 게 아니다. 국민에게서 세금 뜯어먹으려는 정부의 행태가 괘씸해서 이참에 끊어버리려고 한다.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 국민 건강 생각하기는 개뿔!", "담배 양을 천천히 줄이면서 끊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담배는 습관성이라서 갑자기 끊을 경우 금단현상이 발생하니 일단 한 갑이었으면 반으로 열흘 뒤 그 반으로 점차 줄여나가야지", "담배 끊는데 무슨 모임씩이나. 뻔하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한 대만 피우고 다같이 금연합니다'이렇게 외치면서 또 한 대 피울걸", "세금 내기 싫어서라도 꼭 금연에 성공할 거야. 금연한 지 일주일 지났거든~", "담배 피운다 치고 하루 한 갑 3000원씩 저축하니 건강도 챙기고 돈도 모이고 좋더군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강아지 키우기도 양극화? 명품 목걸이에 유기농 사료 등 '귀족' 반려견을 키우는 데 1억7000만원이 든다는 한 조사 결과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네티즌들은 "강아지한테 예쁜 옷, 액세서리 등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싶다. 나는 우리 강아지랑 산책 자주 나가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 피부병 걸리지 않게 신경 써주는 게 다임. 사치 부리는 것이 있다면 수제 간식 사주는 정도", "자기 반려견에게 지나치게 투자하지 마시고 유기견협회나 동물협회에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기부하는 게 더 현명하다. 그게 아니라도 잘 키우고 무지개다리 건널 때까지 버리지 마시길", "이제는 동물들도 빈부 격차 있네~ 못 버는 사람은 밥이라도 먹고 살지", "반려견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건강 신경 써주고 하는 것까진 좋은데 미용, 스파, 옷, 장신구 이딴 건 전혀 강아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등 지적이 많았다.

송형근 인턴기자 x12xsado@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갤럭시노트4, 26일 출시… 갤럭시노트 엣지 출시일은?
2. '대리기사 폭행' 연루, 세월호대책위 임원 총사퇴
3. 애플 IOS8 업데이트 꼭 해야 하는 이유
4. 무료 긴급견인 확대 적용… 최초 10km까지 무료
5. 스코틀랜드 오늘 독립투표 실시, 결과는 언제?

오늘의 BAE 배국남닷컴 www.baekn.com

소녀시대 유닛 '태티서' 미니앨범 쇼케이스



배국남닷컴이 16일 그룹 소녀시대 유닛 태티서를 만났다. 태티서는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2번째 미니앨범 'Holler(할라)' 쇼케이스를 열고 약 2년 4개월 만에 가요계에 컴백했다. 이날 태티서는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 '트윙클'로 쇼케이스 포문을 열었다. 무대를 마친 티파니는 "새 앨범 '할라' 쇼케이스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먼저 '트윙클'로 2년 전 모습을 보여 드렸다. 오랜만에 노래를 들려 드릴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앨범에서는 보컬에 집중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소녀시대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성장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현은 "2년간의 공백기 동안 태티서가 쌓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성숙한 음악을 보여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태티서의 두 번째 미니앨범 '할라'는 톡톡 튀는 팝곡,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발라드곡, 일렉트로닉 디스코 댄스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담았다. 태연은 "이번 앨범은 태티서의 음악색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콘셉트를 잡고 간다기보다 태티서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모습을 편하게 보여 드리는 게 이번 앨범 활동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 '할라'는 평키한 느낌의 댄스곡으로 '틀에 박힌 레퍼토리와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유롭게 꿈을 펼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태연은 "'할라'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곡이다. 앨범 안에 좋은 곡이 많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앨범은 팬들과도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서 멤버들이 많이 참여했다. 곡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주문생산 전문업체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正論

한국경제 관전법의 대전환



김 기 찬
아시아중소기업학회 회장
가톨릭대 교수

한때 60만원하던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14만원 선으로 추락하고,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2011년 5.1%에서, 2012년 1.9%, 2013년 0.3%, 2014년 1분기 마이너스 0.7%로 떨어졌다. 일본의 환율, 중국의 가격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해양산업의 적당 수주금액은 2013년 6억5000만 위안에서 2014년 1분기 4억7000만 위안으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의 수주금액은 2012년 적당 9000만 위안을 저점으로 2013년 1억8000만 위안, 2014년 1분기 2억7000만 위안으로 올라가고 있다. 한국의 조선업체는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고 있는 반면 중국은 가격을 높이고 있다.

한국발 저가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으로, 일본의 조선을 물려받은 한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증가했지만 영업적자는 1조2926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영업적자의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등장에 대비한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의 실패이고, 외부적으로는 아베노믹스로부터 시작된 원엔화 환율의 하락 가속화이다. 단순히 한국중공업의 위기를 넘어 한국경제의 엄청난 구조적인 위기의 징조로 보인다.

우선 2013년 이후 원엔화 환율은 35% 하락했다. 일본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파생상품의 위험이 가장 낮았던 일본으로 달러가 과다하게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엔고의 정상화과정이라 하지만, 어쨌든 수출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일본 제품에 비해 35% 떨어지고 있다. 35% 이상 원가절감하지 못하면 일본 제품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 제품의 해외 수출증가율은 급감하고 있다. 2012년에서 2014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3년간 우리 기업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증가율은 1997년에서 1999년의 IMF 금융위기 수준 이후 처음이다.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심각한 징후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대다수의 정책 당국자들조차도 안타깝게도 아직 이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현장에서는 엔화의 역습이 계속되는데도 한국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관전법은 대단히 방관적이고 정치적이다.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높여 높은 부채비율의 일본에 치명적이 될 것이라는 미국식 관전법이 주류를 이룬다. 경제정책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시장에서 세계 소비자의 선택의 프레임을 흔들어 놓고 있다. 아베노믹스 프레임은 가격경쟁력 저하로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어가던 일본 제조업체들에게 가격경쟁력의 회복을 통해서 제조산업에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합리성을 중시하는 기존 경제학으로는 이해가 안될지 모르지만 심리적 이유를 중시하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전형을 추구해가고 있는 셈이다.

이를 애써 무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프레임 변화의 가장 큰 피해는 한국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계의 소비자들이 다시 일본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 자동차 빅3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10% 이상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은 대체로 전년 대비 10% 이상 급감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6%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을 비롯한 거대한 아시아를 우리의 시장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다.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중국인의 인기만큼 한국콜마나 아모레G의 영업이익이 4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라. 대우인터내셔날은 무려 전년 대비 3분기 영업 실적이 300% 이상 개선됐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은 아시아 시장에서만 14%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한국 기업에 대한 두 가지 뉴스는 한국경제의 관전법에 대전환을 요구한다. 이제 생산원가 싸움에서 시장 개척과 제품 개발 싸움으로 프레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율에 고전하고 있지만 품질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들에게는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기회가 될 것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가 제품 개발하는 기업들에게는 경쟁자이기보다는 커지고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중국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의 천국, 연구개발 안하는 기업의 무덤'이라 부른다. 중국을 저렴한 제품 생산기지로 보면 고비용 구조화로 힘들어지지만, 중국을 거대한 시장으로 보면 중국이 발전할수록 시장 확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사랑과 우정 사이 '썸' 열풍



우리 사회에 '썸' 열풍이 거세다. 내 주변에도 마흔이 넘은 나이에 썸을 타는 후배가 몇몇 있다. 물론 그들은 싱글이다. 신조어 '썸'은 영어 '섬싱(something)'의 줄임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남녀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에 호감을 느끼는 상대방과 조심스럽게 감정을 주고받는 단계로, '사랑과 우정 사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썸과 연애의 경계는 '고백'이란다.

그런데 교열기자인 나에게 '썸'이란 단어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참 불편하다. 외래어인지 비속어인지 구분조차 애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이 은근슬쩍 가슴을 설레게 한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이 같은 설렘 때문일까. 최근 많은 미혼 남녀들이 연애 대신 썸을 선호하고 있다. 관계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때론 쓸데없는 감정 소모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연애와 달리 썸은 대중가요 '썸'의 가사처럼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이기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젊은이들 나름의 '파경(破鏡) 회피 전략'이라고나 할까…. 신세대들이 썸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다.

'썸'은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가 낳은 현상으로 사회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취업난, 안정적이 못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20~30대에게는 연애마저도 사치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썸을 선택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일각에선 디지털 시대의 환경적 요인과 가족해체 현상에 따른 불안심리로 썸을 추구하는 청춘이 늘고 있다고 풀이한다. 이를 방증하듯 올해 초 우리의 청년실업률은 14년 만에 두 자릿수를 넘어섰고,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저출산 국가다. 썸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용어이자 그늘진 단면이 녹아 있는 씁쓸한 자화상인 셈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신조어 못지않게 우리말에는 한자는 전혀 다른데 음이 같거나 비슷해 사용에 어려운 단어가 여럿 있다. 앞 문장에 나온 '방증'이 그 대표적 사례다. 많은 사람들이 '방증'과 '반증'을 구별하지 못해 오용(誤用)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방증(傍證)'은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진 않지만 주변의 상황 등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일컫는다. 한자 傍은 '곁, 옆'이라는 의미를 안고 있다. 이와 달리 '반증(反證)'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반대의 근거를 들어 증명하거나 혹은 그런 증거를 뜻한다. 따라서 앞뒤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온다. 두 단어 모두 증거를 제시해 밝히는 일이지만 '방증'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간접적 증거, '반증'은 반대되는 증거란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 써야 한다. 한마디로 주변 상황을 들어 간접적으로 증명할 때는 방증을, 반대되는 직접적인 근거를 들어 논박할 때는 반증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

썸 문화와 관련해 자칫 잘못 발전할 경우 극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돼 젊은 세대들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사회가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줘 맘껏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썸'에 빠진 '3포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래가 없는 잠깐의 셀렘보다는 풋풋한 고백이 넘쳐나는 연애문화가 그리워지는 가을이다. 편집부 교열기자jsjysh@

스타 에세이

무대는 나의 고향



홍 희 원
배우

배우 홍희원입니다. 요즘 10월 3일 올라갈 연극 '트랜스 십이야' 연습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후 늦은 밤 10시까지 연습에 매진하고 있어요. 총 10명의 배역이 나오다 보니 앙상블이 좋아야 하죠. 더블 캐스팅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호흡도 중요해 연습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번 '트랜스 십이야' 올리 배역은 시대적 배경이 만들어 낸 인물이기에 더 많은 자료와 상상력이 필요했습니다. 신분과 계급의 차이로 인물과 인물이 만났을 때 따르는 시선, 행동의 제약이 다소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보는 관객들은 그 시점에서 유머러스함과 셰익스피어만의 해학적 코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연습의 시작은 한여름, 공연의 끝은 한겨울이네요. 배우에게 있어 체력은 누구나 알고 있듯 재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불규칙적인 배우의 삶 속에서도 평소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또 운동을 통해 그간 쌓여 있던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무대는 제게 고향과도 같습니다. 방학 때마다 무대에서 선후배들과 함께한 워크숍을 통해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꿈이 자랐습니다. 무대 연극작품을 하나둘씩 할 때마다 제 뼈와 살이 조금씩 생성되어 갔습니다. 무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멀리하면 그립고요. 앞으로 제가 배우 일을 계속한다면 결코 이곳을 떠나진 않을 것입니다. 짧고 굵게 배우 인생을 사는 것보다 가늘고 길게 그 단계를 밟고 싶습니다. 여러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인물을 만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렵겠지만 제가 배우의 길을 선택한 만큼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죠.

기자의 눈

오바마, 골프로 현실 도피?



김 나 은
사회경제부/better68@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골프사랑은 유명하다. 문제는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사안은 산적해 있고, 일각에서는 그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의 골프에 대한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는 것에 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권의 관심은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쏠려 있다. 특히 9·11테러 발생 13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IS가 미국인에 이어 영국인 인질까지 참수하면서 최근 미국 내 테러의 공포심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정부의 무능한 모습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지난 2일 IS에 잔혹하게 참수됐던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의 현지 가이드가 납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밝힌 것이다. 소트로프를 도와 현지 통역과 인터뷰 주선 등을 담당했던 현지 가이드 요세프 아보바케르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4일 터키에서 시리아로 들어간 지 20분 만에 IS 조직원들에게 납치됐다고 말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이 가이드는 미국 정부가 소트로프 납치 사건 해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정부는 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나와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달 20일 IS에 의해 참수 피살된 미국인 제임스 폴리를 애도하는 성명만 덜렁 내놓고 곧바로 골프장으로 향했다. 대통령도 얼마든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그의 강박에 가까운 골프사랑은 현실도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골프채는 그만 챙기고 산적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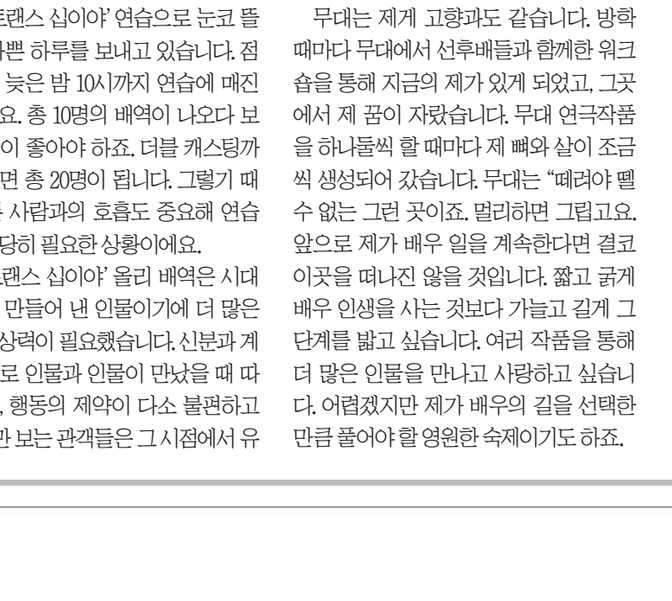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상어 무리 속에 내던져지는 순간 모든 것이 위험에 빠진다
일, 사랑, 친구 심지어 목숨까지도…



Unter Haien
상어의 도시 1·2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의 작가
넬레 노이하우스의 첫 번째 장편소설

넬레 노이하우스 지음 | 서유리 옮김 | 각권 값 11,500원 북로드

2014년 여름,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넬레 노이하우스의 타우누스 시리즈



넬레 노이하우스 지음 | 김진아 옮김 | 각권 값 13,800원

인 터 뷰 MBC 수목극 '운명처럼 널 사랑해' 마친 장나라

"장혁과 찰떡 연기호흡… 백점 만점에 만점"

'12년 만의 재회' 제작단계 화제
비현실적 판타지 캐릭터에 매력
시청자 공감 일으키며 유종의 미



지난 4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에서 열연한 장나라를 서울 홍대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장세영 기자 photothink@

지난 4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빛났다. 6.6%의 시청률로 시작한 이 드라마는 마지막 회에서 10.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퇴장했다.

미약한 시청률로 출발해 두 자릿수 시청률로 막을 내린 '운명처럼 널 사랑해'의 중심에는 배우 장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의 평범녀를 연기한 장나라는 배우 장혁의 과장스러운 캐릭터에 조화롭게 스며들어 시청자의 대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여리지만 단단하고, 허술한 면모 뒤에 똘똘함을 지닌, 외유내강의 사랑스러운 여주인공 김미영 역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12일 오후 서울 홍대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장나라는 드라마의 인기를 배우 장혁의 공으로 돌렸다. 그는 "우리 둘의 호흡에 점수를 준다면 만점 중의 만점이다. 다음에도 또 함께하고 싶다"고 장혁의 연기와 호흡에 반색을 표했다.

이 드라마는 제작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았다. 장혁과 장나라의 12년 만의 재회 때문이다. 팬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고, 장혁과 장나라는 보란듯이 이전보다 더 농익고 탁월한 연기 호흡을 선보였다.

장나라는 드라마 속 평범녀를 연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평범하다는 게 말로는 쉬운데 표현이 정말 어려워요. 자칫하면 보통여성과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연기하고 있을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눈으로 글을 보는 것과 입으로 읽는 것, 그리고 그걸 연기하는 건 천지차이거든요."

판타지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김미영 캐릭터는 장나라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다. "현실에서 우리는 미영이를 일컬어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하죠. 어느 순간 착하고 선한 게 덕이 아닌 세상이 됐어요. 이게 과연 그 친구가 바보여서일까요. 착한 친구들이 하대받지 않는, 당당한 판타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착하고 어딘가 허술하지만 사랑스러운, 즉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만 골라 한다는 지적을 간혹 받긴 하지만 장나라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작품을 선택할 때 예전 캐릭터와 얼마나 겹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 편이라는 장나라는 "비슷한 캐릭터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작은 몸부림은 항상 있다"며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면서 완전히 다른 걸 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연기에 구분을 두지 않으려는 편"이라고 자신의 연기 스타일을 밝혔다.

"작품을 할 때마다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뜻대로 잘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해내고 싶어지죠.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는 '운명처럼 널 사랑해'를 통해 그의 바람을 벌써 이룬 듯하다. 다음 작품에서 더 성장할 장나라의 모습이 기대된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벽 높아진 中 안방 '합작'으로 넘는다



韓·中 드라마 공동제작 바람

'상속자들' '별그대' 연속 빅히트
"문화잠식 우려" 방송규제 강화
팬엔터, 中 절강화책미디어 함께
150억 규모 '킬미, 힐미' 제작 등
韓 기획력·中 자본 합작 잇달아

"한국 TV 드라마 속 한류와 관련된 정보는 중국 대중에게 놀라울 만큼 급격하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한류와 비교하자면, 한류의 새로운 세대가 더욱 공격적이며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 라디오·영화·TV 교환센터(CPEC) 마룬쉥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방송콘텐츠마켓 2014)에 참석해 중화권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강조했다.

중화권 내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국내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다. 국내 드라마의 중국 진출은 '질투'가 최초로 소개된 이래 '사랑이 뭐길래'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인어아가씨' 등으로 중국 내 한류 붐을 이어왔다. '상속자들'로 최근 중국에서의 한류 드라마 열풍이 재점화되고, '별에서 온 그대'가 빅히트를 치면서 중화권에서의 한류 드라마는 인기의 정점을 찍었다.

중국에서의 한국 TV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는 양국의 비슷한 삶의 가치와 문화적 심리에 있다. 마룬쉥 대표는 "유럽이나 미국 프로그램과 비교해 잘 구성된 한국 프로그램 형식이 중국인에게는 더 받아들이기 쉽고, 한국 콘텐츠는 우리에게 배울 만한 창의적 개념 역시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한국 드라마 성장과 함께 한류 스타들이 높은 인기를 얻자 자국 문화가 언제 잠식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에 중국 광전총국(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은 외국 드라마 방송에 규제를 가했다. 이어 올초 해외 판권 구입 프로그램 개수 제한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고, 온라인 제공 영역까지 허가증을 취득해야만 방영될 수 있다는 규제도 신설했다. 드라마의 경우 당국에서 정한 '외국 드라마 프로그램 도입, 방송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만 온라인 방영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규제를 뚫기 위해 한국 제작사는 중국미디어그룹과 손잡기 시작했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이하 팬엔터)는 최근 중국절강화책미디어그룹과 함께 제작비 150억원 규모의 한중 합작 드라마 '킬미, 힐미'의 공동 제작에 나섰다. '킬미, 힐미'는 한국의 기획력 및 제작 노하우와 중국 자본이 각각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합작하는 국내 최초 프로젝트다. 팬엔터 관계자는 "한국은 물론 중화권 시장을 공략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동 제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화프로덕션은 중국 골든유니버셜미디어와 손잡고 고전 '봉신연의'를 소재로 한 55부작 사극을 '신사의 품격', '시크릿 가든'의 신우철 PD와 함께 준비 중이다. 삼화는 지난 2005년 상하이동방미디어유한공사(SMG)와 22부작 드라마 '미로'를 공동 제작한 경험이 있다.

이 밖에도 국내 JYP픽처스와 중국의 영상회사 유쿠-토도우는 한중 합작 온라인 드라마 '드림 나이트(Dream Knight)'를 공동 제작하고, 중화권 한류스타 박해진이 출연하는 '남인방2' 역시 중국 제작사 쥐허미디어와 한국 CJ E&M이 공동 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제작사는 중국의 규제의 벽을 뚫고 중국에선 고품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이해가 맞아떨어져 한중 합작 드라마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랭킹 엔터테인먼트

배우 김윤석, 신세경, 최승현 주연의 영화 '타짜-신의 손'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음악 영화 '비긴 어게인'은 관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주간 7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 아트버스터의 가능성을 높였다.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가 30.9%로 주간 TV 시청률 1위를 수성했고, 8일 오후 8시 KBS 2TV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우루과이'가 시청률 5위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음악에서는 엠넷 '슈퍼스타K6'에서 소개된 포스트맨의 '신촌을 못가'가 무려 61계단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영화	관객	누적관객
1	타짜-신의 손	191만3716명	310만7554명
2	루시	89만9641명	179만5628명
3	해적: 바다로 간 산적	86만7116명	836만2287명
4	두근두근 내 인생	85만3967명	147만4917명
5	인투 더 스톰	71만6281명	188만7537명
7	비긴 어게인	69만1634명	186만2629명
7	명량	35만5370명	1751만7590명
8	스텝 업: 올인	28만1515명	49만1476명
9	마야	15만8040명	21만2311명
10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아프리카 모험~ 베코와 5인의 탐험대	10만9758명	15만4764명

TV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왔다장보리	30.9	MBC
2	가족끼리왜이래	26	KBS2
2	고양이는있다	20.5	KBS1
4	뻐꾸기둥지	17.9	KBS2
5	축구 국가대표평가전 한국:우루과이	17	KBS2
6	마마	16.2	MBC
7	해피선데이	15.1	KBS2
7	KBS9시뉴스	14.9	KBS1
9	개그콘서트	14.3	KBS2
10	엄마의정원	14.1	MBC

온라인 음원차트

순위	곡명	아티스트	전주비교
1	신촌을 못가	포스트맨	61
2	독기	아이언	10
3	너를 사랑해	t 윤미래	-2
4	예뻐졌다	박보람	-2
5	연결고리#힙합	바비	0
6	아이 스웨어	씨스타	-2
7	공허해	위너	-4
8	로스트 스타스	애덤 리바인	10
9	가드올리고 바운스	바비	34
10	한여름밤의 꿀	산이, 레이나	-2

개울물은 졸졸졸… 산책길엔 은은한 솔향이…

여기가 아파트야, 수목원이야?

Cover Story

친환경 '힐링 아파트'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따라 줄지어 늘어선 소나무에선 솔향이 은은하게 느껴진다. 시원스레 흘러가는 개울은 산책로와 나란히 가기도 하고, 또 아담한 구름다리를 타고 물길을 가로지른다. 개울 옆 풍취있는 정자와 곳곳에 꾸며진 야외테라스에선 입주민들이 오손도손 즐거운 담소를 나눈다."

이른바 자연을 입힌 '힐링' 아파트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둘러싸인 도심 속이지만 풍부한 녹지와 휴식공간이 조성돼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찾는 소비자층이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힐링아파트는 단지 내 풍부한 녹색공원을 갖추거나 생태공원과 산을 찾아 인근에 짓는 등 도심 속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에는 조경이 단순히 보이기 위한 단지의 부속물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곧 아파트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요즘 출시되는 아파트들은 산책로와 테마공원, 수변공간 등 다양한 주민 휴식시설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심지어 단지 내 캠핑장까지 갖춘 국내 최초의 아웃도어 테마 조경도 등장하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교통여건까지 편리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전문가들은 힐링 아파트를 고를 때 단지 내 공원이 잘 조성됐는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교통망과 생활 편의시설 등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자연 친화 단지 조성 실수요자 각광
녹지공간 확보가 아파트 경쟁력으로
테마공원·연못·캠핑장까지 만들어
'교통망·편의시설' 갖추면 일석이조

편리한 교통여건은 쾌적한 삶과 함께 도심 속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파트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든다. 실제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갖춘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희소가치가 있어 수요자들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올해 5월과 7월 공급된 '용산 푸르지오 써밋'과 '래미안 용산' 두 단지는 서울지하철 1·4·중앙선 용산역과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한강, 남산, 용산민족공원이 인접해 있다. 용산 푸르지오 써밋은 총 106가구 모집(특별공급분 제외)에 155명이 청약해 평균 1.46 대 1, 래미안 용산은 총 165가구 모집(특별공급분 제외)에 301명이 청약해 평균 1.82 대 1로 각각 3순위에서 마감됐다.

지난 7월 분양된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 아스트로'는 지구 내 대규모 녹지축인 휴먼링(Human Ring) 중심에 있고, 경전철 위례~신사선의 위례중앙역이 단지 바로 앞에 들어와 역세권과 웰빙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청약 접수 결과 총 607가구 모집(특별공급분 제외)에 1만 1908명이 청약해 평균 19.6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친환경 주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인 아파트에 힐링 바람이 가세해 도심이면서도 자연 힐링이 가능한 힐링 아파트를 찾는 주택 수요자들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강영관 기자 kwan@

커버스토리 20·21면



일산자이아파트.

삼성물산 |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SAMSUNG 삼성물산

단지 중앙에 잔디광장… 산책로 보육시설도



삼성물산이 이달 분양하는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는 강남 노른자위에 지어지는 단지인 만큼 최고급 설계가 적용됐다.

단지 중앙의 잔디광장을 비롯해 산책로 등 친환경 조경과 인근 상가와 연계되는 편리한 보행 동선을 마련했다. 또한 고급 단지에 걸맞게 문주와 로비, 필로티, 1층 엘리베이터 홀을 고급화했다. 보육시설이 단지 중앙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어린 자녀를 키우기에도 적합하다. 이밖에도 운동촌과 문화촌으로 구분한 커뮤니티 시설에는 실내골프 연습장과 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세대별 내부도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목창호에는 천연무늬목을 유지하고 주방상판은 고급주택에 시공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이 적용된다. 욕실은 포인트타일과 하부장, 그리고 화강석 상판이 적용되며 현관 아트월을 추가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공공욕실에는 니치(Niche·틈새)장을, 복도에도 따로 수납장을 설치해 수납공간을 확보한 것도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북과 판교, 용인을 잇는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이 도보 5분 거리고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남역 삼성타운을 비롯한 테헤란로 업무지역, 서초 법원과 검찰청 등의 강남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대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고급 주거 배후단지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변의 서초 우성 1·2차, 신동아아파트, 무지개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이들 개발이 마무리되면 '반포'와 맞먹는 5000가구 이상의 대단위 신흥 아파트촌이 탄생하게 되며, 특히 인근 우성1·2차 아파트의 시공사도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1~3차 합쳐서 2000가구가 넘는 래미안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는 지하 2층, 지상 33층의 4개동 총 421가구 중 전용 83~139㎡의 아파트 49가구가 일반분양 분으로 배정된다. 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전용 83C㎡ 16가구, 101B㎡ 15가구, 139㎡ 18가구다.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충민로 17 래미안 갤러리에 지어질 예정이다.

강영관 기자 kwan@

포스코건설 | 갈매 더샵 나인힐스

posco 포스코건설

4개의 휴식정원… 물놀이·캠핑장 설치



포스코건설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선보인다.

포스코건설은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지구 C2블록에 '갈매 더샵 나인힐스'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총 857가구, 전용면적 69~84㎡규모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조성돼 우수한 자연 환경을 갖춘 이 아파트는 곳곳에 다양한 녹지 공간을 조성해 단지 내 쾌적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갈매 더샵 나인힐스'는 단지 내 국제 축구장 규격(105m*68m)보다 넓은 중앙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해 넓은 동간 거리와 바람길을 확보한다. 또 왕벚나무길, 은행나무길, 튤립나무길 등 각 테마 공간을 연결하는 약 1㎞의 둘레길은 단지 바로 옆에 조성되는 근린·역사공원과 연계돼 총 3㎞의 둘레길을 형성하게 된다.

단지 곳곳에 4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4개의 휴식정원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텃밭, 야외 캠핑이 가능한 숲속 캠핑장도 설치된다. 한여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유아 물놀이장,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정글놀이터도 단지 내 조성된다.

'갈매 더샵 나인힐스'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설계를 선보인다. 레저를 즐기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레저용품과 아웃도어 의류 등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수납장을 현관 또는 복도에 제공한다.

전 평형에 가족간의 소통과 홈스쿨링이 가능하도록 주방에는 아일랜드 주방과 식사 테이블, 수납장 등을 연계 배치한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중앙 오픈 스페이스와 결합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은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여가와 휴식, 교육을 모두 즐길 수 있게 한다.

'갈매 더샵 나인힐스' 모델하우스는 서울 노원구 월계로 55길 64(노원구 월계동 320-4번지)에 조성돼 있다. 1588-3170

박태진 기자 tjpippo@

SH공사 | 내곡지구 2·6단지

서울특별시 SH 에스에이치공사

산·하천 연계 '그린&블루 네크워크' 형성



도시와 자연을 품은 단지가 있다.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내곡지구 2단지와 6단지가 그곳이다.

내곡지구 물량은 자연과 이웃하는 생활 단지로 꼽힌다. 단지 남서측 300m 반경에 청계산 등산로와 인접해 있는 이 물량은 북동측으로도 여의천, 소공원과 인접해 있다.

내곡지구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등의 일원에 자리잡았다. 총 면적 76만9000㎡에 수용 가구수는 4504가구다. 여기에는 보금자리주택 3636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단지의 개발 방향은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지는 푸른마을'이다. 세부적으로는 △주변지역과 연계한 커뮤니티 공간 구성 △고속도로 및 헌릉로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비주거용지 배치 △인접 주거지를 고려한 완충공간 조성 △중앙근린공원, 도서관, 여의천, 학교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으로 구분된다.

이 단지는 또한 녹지와 수계축을 연계한 그린 앤 블루 네트워크(Green & Blue Network)도 형성한다. 청계산, 인릉산, 구룡산과의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를 형성하고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 주변시설 및 공원과 연계한 블루 네트워크(Blue Network)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생활환경도 조성된다. 통과교통 배제 및 주변주거지와 연계된 가로망을 형성하고 헌릉로부터 청계역사 광장까지 보행동선 및 자전거도로도 계획 중이다. 또 하천변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이용자 편의도 도모한다. 내곡지구는 이를 통해 친환경 힐링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자연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다. 교통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남서측 반경 50m 이내에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단지 북서측 반경 3㎞ 이내에 양재 IC가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하나로클럽, 이마트, 코스트코, 꽃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형성돼 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대림산업 | 아크로리버파크

DAELIM

38층 초고층… 탁 트인 조망·일조권 '굿'



한강을 품은 서울 서초구 반포로 소재 '아크로리버파크'가 이달 중순 2회차 신규 일반분양 물량을 선보인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총 2회로 나눠 신규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1회차에는 신반포1차 1~19동을, 2회차에는 20~21동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21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급된 1회차 물량과 합쳐 전체 1612가구 대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 단지는 교육,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완벽한 주거환경으로 대표 부촌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반포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지역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단지는 강남 한강변에 10년 만에 공급된 아파트인 데다가 강남 한강변에서는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38층 초고층으로 건설된다.

우선 동 배치를 오픈 뷰(open view)와 59m의 동간 이격거리로 실현해 탁 트인 조망권과 풍부한 일조권을 확보했다. 또한 단지 내 6개 테마정원뿐만 아니라 서측공원과 보행로를 따라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까지 연결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아울러 단지 내에서도 메인 커뮤니티와 지하철 접근성이 우수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특히 천장 높이를 기존 아파트보다 30㎝나 더 높은 2.6m로 설계해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는 개방감과 일조량을 제공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38층의 15개동 총 1612가구 중 전용면적 59~164㎡, 213가구가 일반분양 분으로 배정된다. 면적별 가구수는 △59㎡ 40가구 △84㎡ 118가구 △112㎡ 15가구 △129㎡ 33가구 △164㎡ 7가구 등 중소형이 74%를 차지한다. 입주시기는 이미 분양된 1회차와 같은 2016년 8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1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 우측에 마련될 예정이다. 1600-9099

박태진 기자 tjpippo@

현대건설



디테일, 힐스테이트가 되다

[힐스테이트의 공간]
주방을
요리하는 공간과
즐기는 공간으로
나누고 변화시키고

나의 디테일에 맞춰
주방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파트의 공간]
주방에서 요리하고
주방에서 식사하고

집에 담고 싶은 모든 가치
HILLSTATE

2010~2013 대한민국명품지수 1위 4년 연속 수상
2013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아파트 부문 1위

대우건설 |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전 가구 남향…단지 3면 공원에 둘러싸여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핵심 시범단지(양주시 옥정택지개발지구 A9블록)에서 대우건설이 민간 첫 분양으로 양주신도시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8개동 총 1862가구 초대형 단지이며 전 가구가 전용면적 58㎡로 구성돼 실수요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1차로 556가구가 공급됐고 오는 10월 2차로 56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양주신도시 푸르지오는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교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인근에 관공서, 대형유통시설, 공원 등이 인접한 최고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돼 있으며 단지 내 대형 중앙광장과 수경시설로 개방감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폐율이 10%에 불과해 넓은 동간격으로 일조와 통풍을 우수하며 단지 외곽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근린공원과 연계해 단지 내 조경면적도 47%로 계획, 쾌적한 친환경 아파트로 조성된다.

내부도 58㎡의 소형 타입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수납공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확장 시 주방 팬트리 공간 및 붙박이장을 제공하며, 안방 발코니에 원스톱 세탁공간을 배치해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2196㎡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 시설인 'Uz센터'에는 피트니스클럽과 골프클럽, 도서관과 독서실을 배치하고 어린 자녀를 둔 입주민을 위해 키즈카페와 패밀리룸을 설치해 편리한 단지 내 생활을 가능케 했다. 또한 단지 내 어린이집과 경로시설인 시니어클럽을 조성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며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3.3㎡당 810만원대부터 공급될 예정이며, 중도금 50% 무이자, 나머지 50%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652-4번지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마련됐. 2016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강영관 기자 kwan@

GS건설 | 위례자이

단독주택처럼 앞마당 활용 '테라스하우스'



편리한 주거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의 장점과 앞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장점을 동시에 누리는 테라스하우스가 위례신도시에 선보인다.

GS건설은 26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자이'에 특화평면인 테라스하우스 26가구와 펜트하우스 7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위례자이에 선보이는 테라스하우스는 단지 앞쪽으로 흐르는 창곡천을 전망할 수 있다. 또한 전면부 3개동이 지상 1층에서 지상 2~3층으로 설계돼 조망 및 채광이 뛰어나다. 테라스하우스는 △121㎡TA 8가구 △121㎡TB 4가구 △124㎡TA 8가구 △124㎡TB 4가구 △131㎡T 2가구 등 총 26가구가 공급된다. 테라스 면적은 각 타입별로 약 20㎡부터 최대 약 40㎡까지 제공돼 정원, 바비큐장, 짐(GYM), 티하우스 등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펜트하우스는 남향으로 배치된 5개동 최상층인 12~15층에 총 7가구가 마련된다. 전용 125㎡, 134㎡형 7가구에 테라스 면적 최대 24㎡가 제공되며, 별도 전용 옥상 공간까지 마련돼, 덤으로 운치 있는 야경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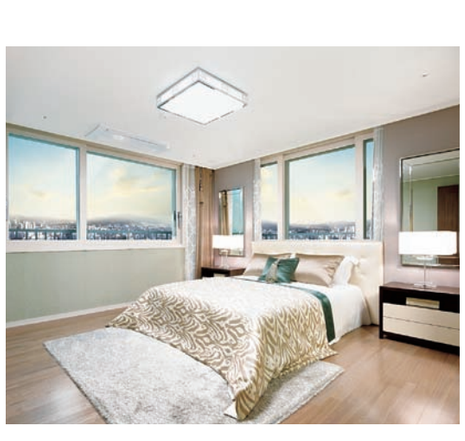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중 최고의 선호도를 자랑하는 위례신도시 휴먼링 내 A2-3블록에 지어지는 위례자이는 전 가구 판상형 설계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와 조망이 우수하고, 169%의 낮은 용적률로 쾌적한 단지 환경을 갖추게 된다. 전용면적 101~134㎡ 11개동 규모의 위례자이 517가구로 구성됐다.

GS건설은 오는 26일께 성남시 복정역 인근에서 위례자이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에는 101㎡A와 테라스하우스 121㎡TB 타입이 마련된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이다.

강영관 기자 kwan@

SK건설 | 인천 SK 스카이뷰

청정주택건설의무 인천 첫 적용…아토피 예방



SK건설은 인천 남구 용현동 604-1번지(용현학익지구 2-1블록)에 총 3971가구의 '인천 SK Sky VIEW(인천 SK 스카이뷰)'를 분양 중이다.

인천 SK Sky VIEW는 지하 2층에서 최고 지상 40층, 총 2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27㎡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800가구 △84㎡ 2282가구 △95㎡ 295가구 △100㎡ 239가구 △109㎡ 156가구 △115㎡ 138가구 △126㎡ 22가구 △127㎡ 39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안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토지이용, 생태환경 등 40여 가지의 평가항목을 통해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인증제도인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자원 재활용 및 절약, 탄소배출량, 오염물질 저감, 실내환경 등 까다로운 정부 기준을 충족시켰다.

1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해당되는 청정건강주택 건설의무도 인천지역 최초로 적용됐다, 국내 최고 수준의 E0급 내장가구재, 친환경 접착제 등을 사용해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을 최소화해 아토피·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중앙정수처리 시스템으로 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제거된 깨끗한 음용수를 각 가구에 공급한다.

여기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완충재의 두께를 일반 기준인 20mm에서 10mm 추가한 30mm를 적용해 층간소음 줄이기에도 나섰다. 이 밖에 무인택배시스템, 음식물탈수기, 전동빨래건조대(확장 시 제공),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인증, 무선AP 설치, 10인치 컬러 홈네트워크시스템, 벽걸이TV용 통합시스템 등이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또 태양광발전시스템, 중수/우수 재활용시스템, 실별 온도제어시스템, 절수형 양변기, 원격 검침시스템 등 다양한 관리비 절감 기술이 적용된다.

구성헌 기자 carlove@

현대건설 | 힐스테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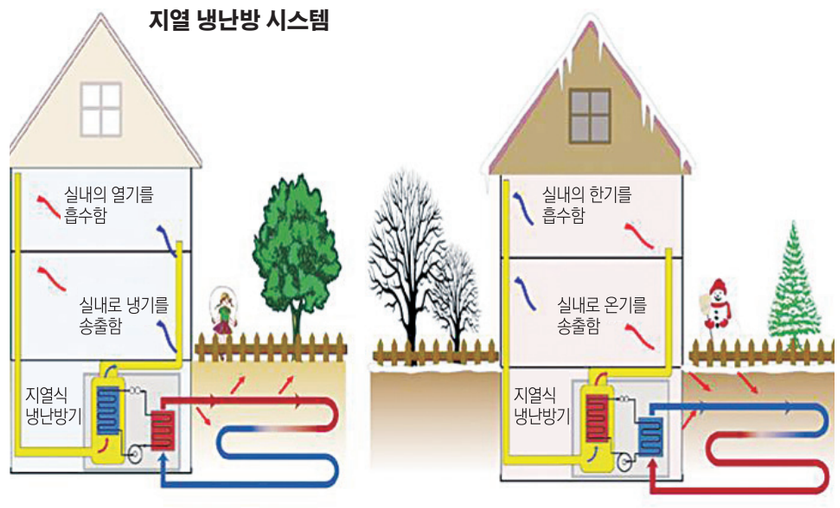
지열 냉난방으로 이산화탄소·관리비 줄여

현대건설은 2000년대 초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 주택' 건설을 선도해 왔다. 현대건설은 '2020 Global Green One Pioneer' 비전 달성을 위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 2020년 에너지 제로 하우스(Zero-House) 기술 확보를 목표로 탄소경영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고효율 단열재와 친환경 마감재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친환경 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기전력 자동차단 절전형 콘센트'는 가전제품 사용 시에는 전원을 공급하고 미사용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의 10~20%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반포힐스테이트, 백련산 힐스테이트, 광장 힐스테이트 등에 적용됐고 전 현장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대건설은 태양광발전, 소형 풍력발전, 지열 냉난방 시스템, 폐열 회수 환기시스템 등 친환경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개발해 힐스테이트 단지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전력 생산의 경우 옥탑 조형물 위에 일조 시간·양 등을 검토한 후 최적의 발전이 가능한 위치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



해 자가 생산된 전기는 각 가구 전기 공급의 일부를 담당한다.

아울러 지열 냉난방 시스템(노인정, 보육시설 적용)으로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및 관리비 절감은 물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에너지 절약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현대건설의 기술개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평균 35% 이상 줄일 수 있는 '지능형 건물 냉난방 공조 복합제어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기존 건물의 설비시스템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해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중국 인바운드 붐… 내수·증시 불지핀다

〈외국인 관광객 국내유치〉

삼성증권 "中 관광객 연간 30조 소비할 것"… 쇼핑·레저·카지노株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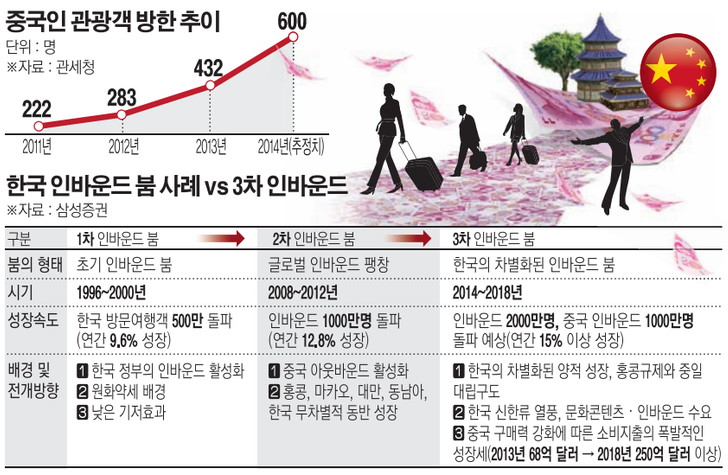
"한국 주식시장을 3년 정도 놓고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인바운드 붐이다. 앞으로 3~5년 내에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중국 인바운드 붐이 올 것이다."

삼성증권 전종규 책임연구위원이 지난 16일 주장한 내용이다. 그 다음날인 17일 삼성증권은 중국인 관광객 유입 수혜주로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서부T&D를 추천종목 목록에 올렸다. 용산호텔 착공 돌입으로 인허가와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중국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호텔 비즈니스 가치가 급증할 것이란 게 주요 이유다.

이처럼 중국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내수시장 활성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전 연구위원은 "중국 해외여행 붐은 이미 시작한 지 5년 됐다"며 "지난 2008년부터 중국의 해외여행자 수가 급속하게 늘면서 2배 반이 증가, 올해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게 중간점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의 해외여행자 수는 총량적으로 7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학적으로 봤을 때 3000~1만 달러는 소비 패턴 변화가 가장 크게 보이는 구간으로, 중국 소득 수준(6800달러) 자체를 봤을 때 (지금은) 해외여행을 나가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2018년이면 중국의 소득 수준이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향후 4~5년 동안 해외여행 붐이 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은 주로 아시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인바운드 붐이 부진의 늪에 빠졌던 한국 내수시장을 성장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 인바운드 붐 사례 vs 3차 인바운드

※자료 : 삼성증권

구분	1차 인바운드 붐	2차 인바운드 붐	3차 인바운드 붐
붐의 형태	초기 인바운드 붐	글로벌 인바운드 팽창	한국의 차별화된 인바운드 붐
시기	1996~2000년	2008~2012년	2014~2018년
성장속도	한국 방문여행객 500만 돌파 (연간 9.6% 성장)	인바운드 1000만명 돌파 (연간 12.8% 성장)	인바운드 2000만명, 중국 인바운드 1000만명 돌파 예상(연간 15% 이상 성장)
배경 및 전개방향	❶ 한국 정부의 인바운드 활성화 ❷ 원화약세 배경 ❸ 낮은 기저효과	❶ 중국 아웃바운드 활성화 ❷ 홍콩, 마카오, 대만, 동남아, 한국 무차별적 동반 성장	❶ 한국의 차별화된 양적 성장, 홍콩규제와 중일 대립구도 ❷ 한국 신한류 열풍, 문화콘텐츠 · 인바운드 수요 ❸ 중국 구매력 강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폭발적인 성장세(2013년 68억 달러 → 2018년 250억 달러 이상)

전 연구위원은 "한국은 이미 2차례의 인바운드 붐을 경험했다"며 "앞으로 5년 안에 강력한 3차 인바운드 붐이 일 것인데, 이는 한국이 주도하는 인바운드 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5년 동안은 아시아 국가들이 무차별적으로 다 좋은 여건이었다"면서 "이에 홍콩을 비롯, 마카오·대만·한국 등으로 왔지만 홍콩의 경우 중국 인바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현재 중일 관계를 봤을 때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신한류 열풍으로 인해 문화 콘텐츠와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이라며 "중국 구매력 강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오는 2018년까지 1000만명의 요우커가 들어와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0조원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지난해 국내 소매 판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제는 내수시장의 큰 변화, 즉 내수시장 성장을 논해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인바운드 붐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순수한 쇼핑·레저 △여행지역의 다변화 △여성 소비 3가지를 꼽았다. 특히 순수한 쇼핑·레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여행사와 카지노 업체는 계속 좋은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전 연구위원은 "중국인들이 국내를 반복해 방문하게 되면서 목적성이 매우 뚜렷해질 것"이라며 "이는 휴양과 쇼핑 패턴 강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에 저가항공사 및 강원랜드와 같은 지역 레저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 인바운드 붐의 핵심은 여성 소비"라며 "패션·화장품·액세서리·가정용품·베이비&키즈 중심으로 재편될 텐데, 과거 홍콩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플랫폼은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외국대사관 상무관 초청 한국 자본시장 포럼 개최

한국거래소는 17일 주한 외국 대사관 상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소개하는 '한국 자본시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52개국에서 72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 연혁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특징 및 장점 △외국기업의 KRX 상장 안내 △한국 자본시장 전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거래대금 기준 세계 7위의 증권시장과 세계 8위의 파생상품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된 국제적 시장"이라며 "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6월10일 미국 보스턴에서 동부지역 IT·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기업 및 기관투자자 그리고 증권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US Companies' Listing in Korea'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거래소는 당시 포럼을 통해 한국 증시 소개·국내증시 상장 이점·상장 절차·상장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인지도 제고와 우량 미국기업 상장 유치기반 강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특히 거래소 및 참가기관들은 각 기관별 업무에 따라 △KDR 발행 △대표주관사의 역할 △상장 추진시 회계·법률관련 준비사항 등 기업공개 및 상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유진투자證, 신규고객에 '현금지급' 이벤트



유진투자증권은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현금, 커피 기프티콘 등을 지급하는 경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회 이상 거래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신청 고객 전원에게는 주식담보대출 3% 인하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유진투자증권의 고객이 아니어도 이벤트 페이지에 이름과 연락처만 기입만 하면, 선착순으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신희철 e-biz팀장은 "이벤트 외에도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말까지 주식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3개월간 선물옵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고객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은행연계계좌는 전국 주요 시중 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이벤트 관련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1588-6300) 또는 이벤트 페이지(http://www.eugenefn.com/event/event.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정 기자 lmj@



미래에셋증권 파생결합 12종

미래에셋증권은 연 6% 스텝다운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12종을 19일 오후 2시까지 총 15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 제6582회 스텝다운 ELS'는 HSCEI지수·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상하한가 종목 5년새 70% 뚝

2009년 1만2105개→2013년 3718개… 코스피가 더 줄어

증권시장에서 최근 5년간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전체 증시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수는 1만2105개였으나 2011년에는 7688개로 급감했다. 특히 2013년은 3718개로 2009년 대비 무려 69.29%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상하한가 종목 수가 지난 2009년 2644개에서 2011년 1860개로 감소했으며 작년에는 1193개까지 떨어졌다. 코스닥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09년 9461개이던 상하한가 종목 수가 2011년 5828개, 작년 2525개로 감소했다.

이 기간 상하한가 종목 수는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에서 많이 나왔다. 코스닥시장의 최근 5년간 상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수는 2만8369개로 유가증권시장 9572개의 약 3배에 달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하한가 종목 수 격차는 2009년 4배가량이었지만 작년에는 2배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또 하한가보다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수는 7560개로 하한가 2012개 대비 4배가량 많았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수가 2만985개로 하한가 7384개의 3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규모 기준으로 대·중·소형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의 상하한가 종목에서 소형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90.0%로 가장 높았다. 중형주와 대형주는 각각 8.7%, 0.5%에 그쳤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이 비중은 소형주가 77.8%로 앞섰고 중형주 18.1%, 대형주 4.0% 순이었다.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코스닥시장에서, 중대형주에 비해 소형주에서 상하한가 종목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고 시가총액 규모가 작아 가격제한폭에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규 상장기업이 많아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증시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될 시 중·소형주의 주가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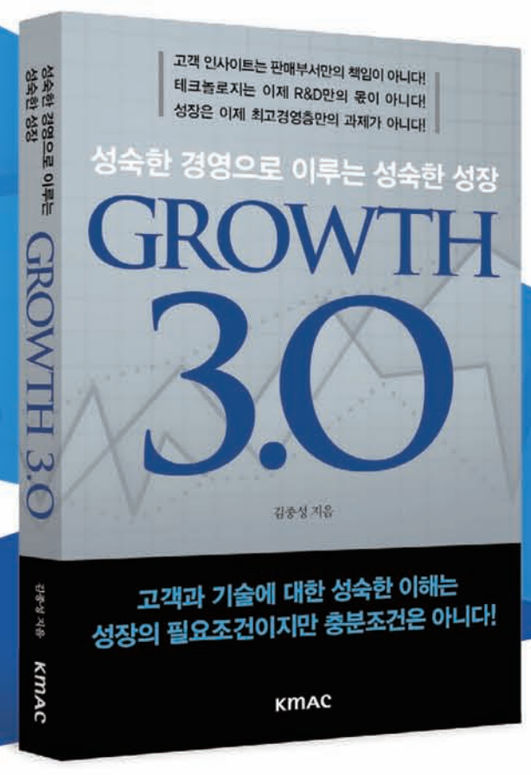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1 **혁신력**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2 **예측력** :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3 **활용력** :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4 **적응력** :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GROWTH 3.0
김종성 지음 | 값 15,000원

●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절찬리 판매중! 다부수 구매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 : Tel 02-3786-0184 / Fax 02-3786-0107 / njh@kmac.co.kr

KMAC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아프리카TV '효자BJ'에게 '스톡옵션' 쐈다

상반기 영업익 48%↑… '최군TV' 최우람씨 등 직원 30여명에 3만주 부여

아프리카TV가 1인 제작자인 브로드캐스팅 자키(BJ)들에게 '별풍선'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선물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최우람 등 총 30명의 직원에게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방식으로 3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행사기간은 오는 2017년 9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6일까지다. 행사가격은 3만 1950원이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가 상승 시 낮은 가격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번에 아프리카TV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직원들은 최군, 김이브 등 인기 방송을 제작하는 BJ들이다.

BJ는 아프리카TV에서 1인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BJ는 보이는 라디오부터 스포츠, 게임 중계 방송까지 다양한 형식의 1인 방송을 하고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한다. 시청자는 BJ의 방송이 마음에 들면 별풍선을 선물하고 BJ는 이를 아프리카TV와 일정 비율로 나눠 수입원으로 활용한다.



아프리카TV가 스톡옵션 1000주를 부여한 최우람 씨는 '최군TV'의 진행자 최군이다. 최 씨가 진행하는 최군TV는 배우 공유, 이나영, 안성기 등이 출연할 정도로 인기를 끌며 지난 2011년 말 아프리카TV 방송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최 씨 이외에도 이번에 각 1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김소진(김이브), 이경선(망치부인), 김효근(효근) 등 아프리카TV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BJ들이다.

이번 스톡옵션 부여는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가 인기 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를 모은 인기 BJ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은 "BJ 지원 프로그램 확대하겠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한편 아프리카TV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3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82억원으로 24.9%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1억원으로 276.6% 급증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쿠키런' 내달 코스닥서 뛴다

'알짜기업' 데브시스터즈 6일 상장… 투자자 관심

모바일 게임계의 히트작 '쿠키런'을 개발한 데브시스터즈가 다음달 6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60%를 웃돌 정도로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등 알짜기업으로 벌써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지훈 데브시스터즈 창업자 겸 공동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데브시스터즈가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게임 개발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슈퍼셀이나 킹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7년 설립된 이 회사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613억원, 영업이익 241억원, 당기순이익 223억원이다. 올 상반기에는 매출액 437억원, 영업이익 264억원, 당기순이익 239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각각 전년도 연간 실적의 71%, 110%, 107%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올 초부터 본격적인 해외 매출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매출액 437억원 중 해외 매출액은 181억원으로, 전체의 41% 수준이다. 해외 시장을 겨냥하여 개발된 라인 쿠키런은 태국과 대만에서 1위, 인도네시아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쿠지런 유저는 5500만 명을 돌파했다.



데브시스터즈는 차별화된 게임 개발 능력 및 운영 노하우뿐 만 아니라 방대한 유저 기반으로 대변되는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연말에는 글로벌 신작 '쿠키런2'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 세계 7500만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오븐브레이크와 쿠키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기존 매출을 유지하겠다"며 "동시에 국내외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규 라인업을 개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데브시스터즈의 총 공모주식수는 270만주로, 주당 공모희망가는 4만 3000~5만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1161억~135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달 18~19일 수요예측을 거쳐 24~25일 청약할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내달 6일이며, 대표 주관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이다.

송영록 기자 syr@

GS그룹 오너가 보유 상장 계열사 지분가치

※ 상장사=기준 시가, 비상장사=최근 사업연도 순자산

(단위: 원)	허창수	이주영	허윤영	허윤홍	허진수	허명수	허태수	허완구 외 친인척
2012년말	6639억	115억	317억	296억	3044억	2361억	1985억	2조8239억
2013년말	4378억	증여	441억	173억	1977억	1591억	1404억	2조3877억
2014년 8월말	4130억	증여	406억	204억	1898억	1461억	1217억	2조177억
총계	(2012년말) 4조6315억 →			(2013년말) 3조6558억 →			(2014년 8월말) 3조2339억	

지주사 주가 '뚝'… 3년새 1조4000억 줄어

재벌과 주가 ⑥ GS그룹

GS·건설 부진 평가액 30% 이상 하락… 삼양통상은 차익

GS그룹 허창수 회장 오너 일가가 불황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최근 3년간 허창수 회장 일가의 지분 평가가치는 30%이상 하락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그룹 허창수 회장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20여개다. 오너 일가의 보유 지분가치는 올 8월말 현재 3조2339억원으로 지난해말 3조6558억원과 비교해 12%(4220억원)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2년말 4조6315억원과 비교하면 1조4000여억원가량이 감소한 금액이다.

우선 허창수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GS와 GS건설, GS자산운용, 센트럴모터스 등 4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허 회장의 보유지분가치는 올 8월말 현재 4130억원으로 지난 2012년말 6639억원과 비교해 2500억원이상이 내려간 상태다. 허창수 회장의 부인인 이주영씨는 지난 2012년말까지만해도 115억원어치의 위너셋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3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회장의 장녀 허윤영씨와 장남 허윤홍 GS건설 상무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가치는 지난 2012년말 각각 317억원과 296억원에서 올해 8월말 현재 각각 406억원과 20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허윤영씨와 허윤홍 상무의 지분가치가 다른 것은 허윤영씨가 보유한 위너셋의 순자산이 최근 3년간 20%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허윤홍 상무가 허윤영씨보다 많이 보유한 GS와 GS건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GS와 GS건설의 주식을 보유한 다른 친인척들의 지분가치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은 지난 2012년말까지만해도 보유지분가치가 3000억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듬해 1977억원으로 추락했다. 올해 들어서도 GS와 GS건설의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올 8월말 현재 189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GS네오텍 허정수 회장의 보유지분 가치도 올 8월말 현재 2846억원으로 지난 2012년말 3319억원과 비교해 500억원가량이 감소했다.

반면 삼양통상의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는 쏠쏠한 평가 차익을 누리고 있다. 삼양통상의 주가는 지난 2012년말 2만 1400원에서 이듬해말 2만6100원으로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면 올 8월말 현재 7만5800원까지 올랐다. 최근 3년새 2.5배가 상승한 셈이다. 삼양통상의 지분은 허남각 회장 등 오너 일가가 51.80%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 방계 계열사 중 하나인 코스모앤컴퍼니의 허경수 회장은 오너 일가 중 가장 초라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스모앤컴퍼니의 핵심 상장 계열사인 코스모화학의 주가는 지루한 행보 속에서 좀처럼 기지재를 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다른 비상장사 계열사들도 대부분 자본잠식에 빠져 있어 허경수 회장이 오히려 사비를 털어 재무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신도리코, 美 '큐브 3세대' 독점판매

〈3D프린터〉

신도리코가 미국 3D프린터 전문기업 3D시스템즈와 '큐브 3세대(Cube)'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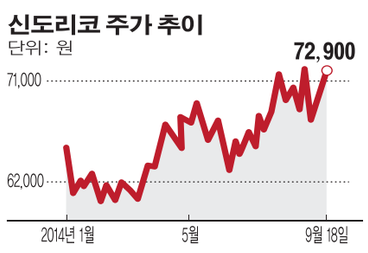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3D 시스템즈와 협력을 강화했다"며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보여 3D 프린터의 대중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큐브 3세대는 PJP(Plastic Jet Printing) 방식의 일반 소비자용 3D프린터 제품이다. 컬러 터치 스크린과 기기 자동화를 통해 성인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기기를 조작할 수 있어 가정이나, 유치원, 도서관, 교실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번에 함께 출시하는 큐브Pro는 전문가용 3D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최대 크기는 싱글젯 기준 285x270x230mm이다. 플라스틱합성수지(ABS), 필라멘트(PLA)뿐 아니라 나일론 소재도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 보다 고강도의 산업용 샘플 제작도 가능하다. 3가지 색상을 함께 사용하는 기종도 있다.

신도리코 홍보실 이철우 이사는 "산업용 시장부터, 개인용 시장에 이르기까지 3D프린터의 성장 여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며 "신도리코는 앞선 기술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3D프린터 시장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DLB·ELS 3종 동양증권 공모

동양증권은 오는 19일까지 다양한 수익구조로 설계된 DLB 1종 및 ELS 2종을 총 3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DLB 12호는 원금보장형 양방향 녹아웃(Knock-out) 상품으로 만기 1년에 커피 선물 최근월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100%)의 120%를 초과 상승한 적이 있고, 8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연 0.6%를 지급한다.

도화엔지니어링 '오만 공략' 시동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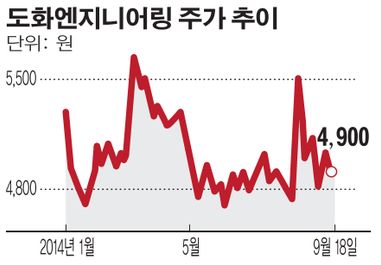
도화엔지니어링이 오만에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를 설립한다. 오만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화엔지니어링은 오만에서 10억원 가량의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를 만든다.

회사 관계자는 "10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사업에 대한 수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프로젝트 진행 시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망 프로젝트 같이 큰 프로젝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젝트 오피스는 향후 도화엔지니어링이 오만 사업을 진행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화엔지니어링은 오만이 추진중인 국가 철도망 프로젝트 수주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오만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걸프만 인접 6개국을 철도로 잇는 초대형 사업인 'GCC 철도 프로젝트'와 연계해 국가철도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총 구간은 2244㎞로 사업비는 300억 달러(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8년 소하르-부라이미(Sohar Buraimi) 지역을 잇는 1구간(170㎞)이 우선 완공될 계획이다. 사업비는 30억달러(약 3조650억원)로 관측된다.

도화엔지니어링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구간에 대한 사업관리(PMC)부문 입찰에 참여했으며 수주가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오만 입찰청에 따르면 한국 컨소시엄은 감리 2년 포함 2억7800만달러의 가격을 제시해 두 번째로 적게 써 낸 스페인 컨소시엄(4억2900만달러)보다 크게 앞서 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 시 프로젝트 오피스를 지사나 법인 형태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 손잡은 와이디온라인 '게임캐스트' 운영대행 계약

와이디온라인이 삼성전자와 신개념 미디어 서비스 '게임캐스트'의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게임캐스트'는 삼성전자 게임서비스 그룹이 개발한 모바일게임 녹화 앱으로, 게임 플레이 동영상뿐만 아니라 게이머의 표정과 목소리까지 원터치로 쉽게 녹화할 수 있는 신개념 미디어 서비스다.

앱을 통해 유명 BJ 동영상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으며, 일반 유저들도 최고의 화질과 음질의 게임 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표정과 목소리까지 영상에 담을 수 있어 기존 앱과 다른 차별화된 미디어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게임캐스트'의 운영대행을 맡게 된 와이디온라인 G&C센터는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활', '윈드러너' 등 국내 1위 게임부터 최근 '드래곤을만나다'까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게임 서비스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운영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지난해 말 미래형 전자화폐인 비트코인 한국 거래소 '코빗'과 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와이디온라인 관계자는 "게임캐스트가 급변하는 모바일게임 유저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앞으로 독보적인 서비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성전자와의 이번 운영대행 계약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등 최고의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미정 기자 lmj@

오천만이 하나가 될
약속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우리는 새로운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소리치며 오천만은 하나가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선전과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SAMSUNG
PRESTIGE PARTNER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